

# 성도의 빛 9

1988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9월호 별책 부록 : 성도의 빛 이란이란

# 성도의 빛

1988년 9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앤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블라드, 조셉 비 워스런.

고문 : 휴 더블류 피녹크,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키드 더블류 윌콕스.

통 권 : 제268권, 제24권, 제9호  
등 록 :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 1988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정 기 만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 영인쇄주식회사 이 세 용  
International Magazine PBMA8809KO  
PRINTED IN KOREA 9/88  
© 1988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ublished monthly by the Corpor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pplication to mail at  
second class postage rates is pending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531-2947.

POSTMASTER: Send form 3579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4,000원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738 - 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 : “니파이의 시현”, 클라크 켈리 프라이스, 1980년.  
카탈 스포엘의 허가를 얻어서 사용함.

## 목차

### 대관장단 메시지 :

2 주님의 영을 구함.....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 방문교육메시지 :

7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9 네 십자가를 지고.....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10 회오리 바람.....에일린 에프 엠 벨

13 기적을 행하러 가는 길에.....메리 엘렌 에드먼즈

17 찰즈 디데이 장로.....에드윈 오우 해롤드슨

### 물론경이 나에게 주는 의미 :

23 나는 저자를 알았음.....로베르트 메인즈

25 선한 스위스 “사마리아인”.....카렌 엘 브라운

26 어지럽힘이 없는 신앙.....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 물론 경험 :

33 멕시코에서의 “마라톤”.....브리기다 에이 디 페레즈

34 참된 빛.....마티나 슈벨

35 그의 말씀이 성취됨.....에리카 헤이먼

35 그들은 마지막 순간을 예상했다.....리차드 엘 에머리

### 질의 응답 :

37 수호 천사.....래리 이 달; 성찬 기도문.....도린 울리

### 청소년란

41 물론 메시지

43 모범의 간증.....조셉 밀러

45 추위 속에서 배운 한 가지 교훈.....그레고리 글렌

47 나는 그 말을 기억한다.....트리스타 크로슬리

49 나의 부친과 맹인.....데니스 케이 엘런

### 어린이란

2 다 함께 나누는 시간 : 물론 용감한 선지자.....팻 그래함

4 뉴스 속의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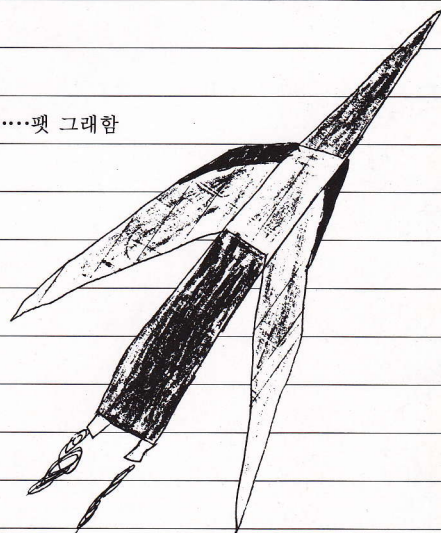
5 창조적인 친구들

### 심심풀이

6 소와 쇠스랑.....리로이 바니

8 심심풀이 : 숲속의 동물.....캐롤 콘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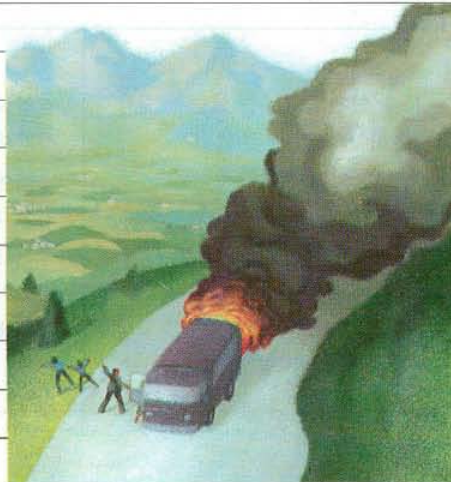
### 교회 및 지역 소식



THE GREAT ES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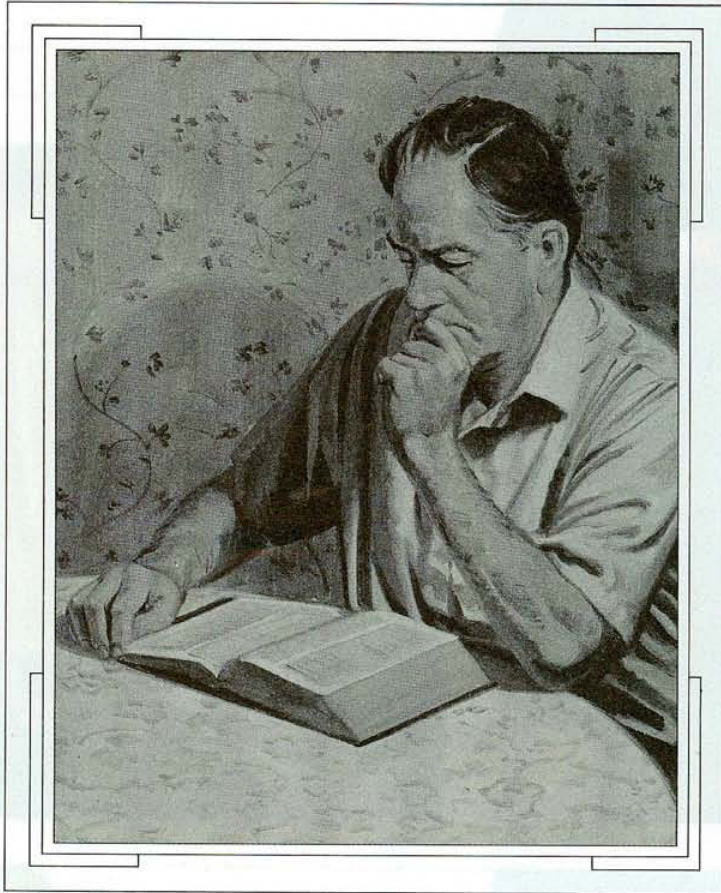
THE GREAT ESCAPE

THE GREAT ESCAPE



# 주님의 영을 구함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우**리가 과연 끈고 좁은 길에 있는지 알 수 있는 한가지 확실한 방법은 우리 생활에서 주님의 영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신을 동반하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갈라디아서 5 : 22~23)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을 지니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그것을 느껴 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신의 속삭임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과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존 웰즈 감독의 생애에 있었던 사건을 자주 들려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적인 것입니다. 웰즈 감독은 많은 교회 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부 사항과 통계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웰즈 감독 부처의 아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기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화물 열차에 치였습니다. 웰즈 자매는 아들의 죽음으로 몹시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장례식 동안이나 매장 후에도 위안을 얻지 못하고 계속 슬퍼했습니다. 웰즈 감독은 그녀가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건강이 열려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안된 어느 날 웰즈 자매는 슬픔에 쌓인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그녀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난 잘 있어요.”

그런 다음 그는 어머니에게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경험이 많은 철도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가에 대해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것은 분명히 사고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는 또한 어머니에게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곧 아버지에게 가고자 했지만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러 가지 자신의 일로 인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영의 속삭임에 반응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온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난 잘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데이비드 오 맥케이, 복음 이상, 솔트레이크시티 :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3년, 525~26페이지 참조)

맥케이 대관장과 리 대관장은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영의 속삭임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속삭임은 대부분 우리가 과도한 업무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나 우리의 생각이 매일 매일의 생활의 압박에서 벗어나 있을 때 오게 됩니다.

명상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한 경전 구절—야고보서 1장 5절—을 명상함으로써 한 어린 소년은 숲으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경륜의 시대에 하늘을 연 것입니다.

신약전서의 요한복음에 있는 한 경전 구절을 숙고해 봄으로 인해 영광의 세 등급에 관한 위대한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경전 구절을 숙고해 봄으로 인해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하늘을 열고 영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으로 알려진 그 계시는 이제는 교리와 성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모와 조부모 여러분께 주신 책임의 중요성을 숙고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영원한 엄숙함이 너희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하라.”(교성 43 : 34)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적인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리라”

경전을 읽고 연구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에서 주도하여 모범을 보이며 경전을 연구해야 합니다. 경전은 성신의 권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충실하고 순종하는 추종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비밀과 평화로운 것을 알 수 있게 되리라.”(교성 42 : 61)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의 다음 말씀은 어떻게 우리 생활에서 좀더 영성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나는 거룩한 분과의 관계가 소홀하고 들을 거룩한 귀도 없으며 말할 거룩한 음성도 없다고 느껴질 때 멀리 아주 멀어져 있음을 압니다. 경전 속에 자신을 몰두하면 그 거리는 좁혀지며 영성은 되돌아옵니다. 나는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좀더 열렬히 사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그들을 더욱 사랑하면 할수록 그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기가 더욱 쉽다는 것을 압니다.”(“나의 손자녀 및 시온의 다른 모든 젊은이에게 가르치기를 바라는 것” 신학 연구원 및 중등부 교사에게 한 연설, 브리검 영 대학교 1966년 7월 11일)

그것은 훌륭한 권고이며 경험으로 나는 그것이 참됨을 압니다.

여러분이 경전을 더 잘 알면 알수록 주님의 마음과 뜻에 더욱 가깝게 되며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로서 더욱 가깝게 됩니다. 여러분은 경전을 읽음으로써 영원의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잡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숙고해 보십시오.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네





플랜

그의 아버지는 여러 가지 자신의 일로 너무 바빠서 때문에 영의 속삭임에 반응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어머니에게 온 것입니다.

마음 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런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라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교성 9 : 8)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이 마지막 구절을 주목해 보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흔히 느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민감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느낌을 통해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연유로 영적인 속삭임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며 때론 눈물을 흘리게도 합니다. 여러 번 나는 영으로 감동될 때 감정이 부드러워 지며 느낌이 매우 민감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 영의 영향력을 발산함

성신은 우리의 감정을 좀더 부드럽게 해줍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좀더 사랑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관계에서 좀더 평안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우리 모습에서 영의 영향력이 스며나음을 느끼고 우리 곁에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좀더 하나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신의 속삭임에 좀더 민감해지며 그리하여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의 구세주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끊임없이 너희 마음 속에 생명의 말씀을 쌓아 두라.”(교성 84 : 85)

나의 장모인 바바라 스미스 어뮤슨 자매는 40년 동안 미망인으로 지내며 20년 동안 로간 성전에서 의식 봉사자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간교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참으로 사랑하여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파부로서 그 가정에 신권 소유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택함받은 여인은 지상 생활을 떠날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덴마크인 개종자로 유타 개척자 중 처음으로 보석상과 시계 제조인이 된 남편 카알 크리스찬 어뮤슨이 꿈꾸듯 또는 시현을 보듯 그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어느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것은 너무 분명해서 마치 그분이 방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나의 지상 생활이 끝나려

하는데 바로 다음 목요일(그날은 금요일이었음)에 지상 생활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나에게 말해 주러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녀인 메이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어머니,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으셔서 그래요. 심기가 좋지 않으세요.”

그녀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응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난 괜찮아. 걱정할 게 아무 것도 없단다. 단지 나는 다음 목요일에 떠나게 될 것을 안단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이블, 시간이 되면 나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즐겨 앉아 물문경과 교회 역사 이야기를 해주던 이 집 이층방에서 죽고 싶단다.”

그 시간이 다가오자 그녀는 워드 금식 간증회에 참석하여 간증을 했습니다. 감독은 그녀가 마치 먼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처럼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과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느낀 기쁨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성전은 예배당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열렬한 간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자 그녀는 은행으로 가서 얼마 되지 않는 잔고를 모두 찾아 빛을 청산하고 장의사에 가서 자신의 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신의 집의 수도와 전기를 모두 끄고 메이블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가 죽기 바로 전날 아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침대에 앉아 손을 마주 잡은 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는 날, 메이블은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이블, 조금 졸립구나. 저녁까지 잠을 자고 있으면 깨우지 말거라.”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온하게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의 영에 부합되는 영성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온 생애 동안 끊임없이 성신이 동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을 지니게 되면 봉사하기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순교한 지 여러 해가 지난 후 브리감 영 대관장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들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충실하여 주님의 영을 지니도록 말해

주시오. 그것은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것이요, 작고 고요한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홀히 하지 마시오. 그것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줄 것이며 왕국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요. 형제들에게 확신을 갖고 마음을 열고 있으라고 이르시오. 그리하여 성신이 그들에게 이를 때 이들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도록 말입니다.”(브리감 영의 역사 원고, 1947년 2월 23일, 2권, 엘튼 제이 왓슨 편집, 솔트레이크시티; 엘튼 제이 왓슨, 1968년, 1971년, 2:529)

주님은 이 사업을 번성케 해주셨으며,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종들에게 속삭이면 들릴 만한 거리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이 말일의 사업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알기 위해서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영을 구하십시오. 항상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나는 주님의 영이 여러분 가정과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경전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영을 가져다 줍니다.
3. 명상을 할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영의 속삭임에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4.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흔히 느낌으로 받습니다.
5. 이 말일의 사업은 영적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알기 위해서는 영이 필요합니다.

### 토론시 유의 사항

1. 여러분의 생활에서 주님의 영을 지니는 것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나눈다.
2. 이 기사에서 가족이 큰소리로 읽고 토론할 경전 구절이나 인용문이 있는가?
3. 이 토론을 방문하기 전에 가장과 이야기한 후 갖는 것이 더 좋겠는가? 정원회 지도자나 감독의 메시지가 있는가?



#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목적: 쉬지 말고 덕으로써 우리 생각을 장식하기 위함.

**경**전에서는 우리에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잠언 23:7), 또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교성 121:45)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선지자 물론 모두 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인 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3:4~5 및 모로나이서 7:45 참조)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결정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의로운 생각을 한다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구별합니까? 경전에서 한 가지 지침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끊임없이 선으로 이끌어 인도하매 무엇이랴도 선으로 이끌어 인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은 것인즉”(모로나이서 7:13)

우리는 우리 생각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의 생각을 가꾸어 의로운 생각을 가꾸는 한편 불순하고 부정적이며 죄스러운 생각은 뽑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생각을 가꾸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필멸의 상태의 목적을 마음 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은 자신이 특히 자기보다 부와 물질적인 소유가 더 많은 사람의 생활과 자신의 생활을 비교해 볼 때 절망을 느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기로 결정하고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성품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여인은 구세주의 생애에 또 자신이 좀더 주님의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욱

민감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간증과 가족이 더욱 더 소중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세상적인 부를 동경했던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같은 품성을 더욱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더 행복하게 느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쌓으려면, 악하고 부정적이고 불결한 생각을 하지 않고 멀리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덕스러운 생각을 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경전 구절이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생각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옹오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빌립보서 4:8)

우리는 훌륭한 환경을 찾고 경전 및 기타 좋은 책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마음을 고양시키는 건전한 여흥을 선택하고 정숙한 옷을 입고 재능을 발전시키고 교회와 지역 사회 봉사에 참여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그런 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덕스러운 생각을 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 생활이 더욱 더 덕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의롭게 생활하기 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좀더 그리스도같이 될 것입니다. \*

##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고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있는 하늘의 “보화”에 대하여 토의한다.
2. 교리와 성약 121편 45절과 46절을 읽고 덕스러운 생각으로부터 오는 축복에 대하여 토의한다. 의로운 생각과 소망이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영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

관계 자료는 가정의 밤 자료집 15, 257~259 페이지를 참조한다.



# 네 십자가를 지고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예** 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태복음 16:24~25)

그러나 우리는 각자 어떤 종류의 십자가를 집니까? 그 십자가의 모양과 무게와 크기와 규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는 많습니다. 외로움의 십자가, 다리, 팔, 귀, 눈, 동작을 상실한 육체적인 제약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을 봅니다. 또 그들이 그 십자가를 품위있게 지고 가는 그 힘을 보고 존경하게 됩니다. 범법이나 표창이나 유혹, 아름다움, 명예, 부 등이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건강이 나쁜 것도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짐도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친지들의 비판이나 거부도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는 실재하지만, 쉽사리 눈에 띄이거나 인식되지 않는 그러한 십자가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형태의 십자가는 부모, 가족, 교사, 감독, 스테이크 부장단의 일원, 남자 친구, 여자 친구, 직장 동료, 반급우 등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또 항상 눈에 띄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 상당히 무겁고 염려스러운 십자가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의 결여 즉 자기 자신을 기꺼이 받아들여서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자기의 품행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자신의 마음 안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까? 또는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업신여기는 생각을 합니까?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은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든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는 자신의 영원한 진보가 늦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좀더 큰 재능과 힘이 있는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일종의 장애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물몬경에서 가장 즐겨 인용하는 성구 가운데 하나인 다음 성구에서 이렇게 말한 암몬처럼 되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힘이나 지혜를 자랑함이 아니라 보라, 나의 기쁨이 차고 넘치나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려 함이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노라. 나는 힘이 약하여 나를 자랑할 수 없으나 주의 힘으로 만사를 다 할 수 있으며, 나의 주를 자랑하리라.”(앨마서 26:11~12)

나는 우리가 암몬이 말한 것을 믿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책임있는 직책에 부름받은 많은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도움으로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좀 더 쉽게 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56편 2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경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성 58:42) 이것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고백하고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필요 이상으로 더 멀리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합니다.

또 다른 십자가는 권고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합당한 인도, 지시, 대화를 싫어하는 저항하고 거역하고 미루고 다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네가 뭐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왜 이렇게 제약이 많아?” “자유의지는 언제 적용되지?” “왜 날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고로 인해 우리가 불편하게 되고 권고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고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회오리 바람

에일린 에프 엠 벨

나는 여러분이 받은 권고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르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게 됨으로써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배울 때 십자가를 좀더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듣고 배우지 않으려는 마음은 참으로 무거운 침묵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응답이 더디게 오고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칭송이 무거운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나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름과 책임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과 찬사를 받을지라도,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구세주를 따르는 것에서 또 병들고 고통받고 낙담하고 집없고 십자가에 짓눌린 사람을 돕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 속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동시에 찬송가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헤아리는 훌륭한 판단력과 지각을 갖추는 것은 우리의 권리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으로 시달려  
십자가가 무겁게 생각될 때  
네가 받은 복을 모두 세어라  
너의 모든 의심 사라지리라  
(찬송가 88장)

때로는 부당하고 불공평한 것같이 보일 수도 있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구세주를 따르는 것은 우리 생활에 힘과 화평과 목적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

유타주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에서 행한 말씀에서 발췌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몬튼에 있는 레이드로 폐기물 처리 시스템 회사에서는 그날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으며 앨버타주 에드몬튼의 밀우즈 스테이크에서 고등 평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돈 휴즈는 책상에 앉아서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퇴근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때는 1987년 7월 31일 오후 세 시 반경이었으며 에드몬튼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가장 더운 주에 그 일이 발생했다. 그날은 유난히 습도가 높았다. 그 전날 밤 이상한 구름덩어리가 그 도시를 가로질러 움직였으며 마치 영화의 특별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같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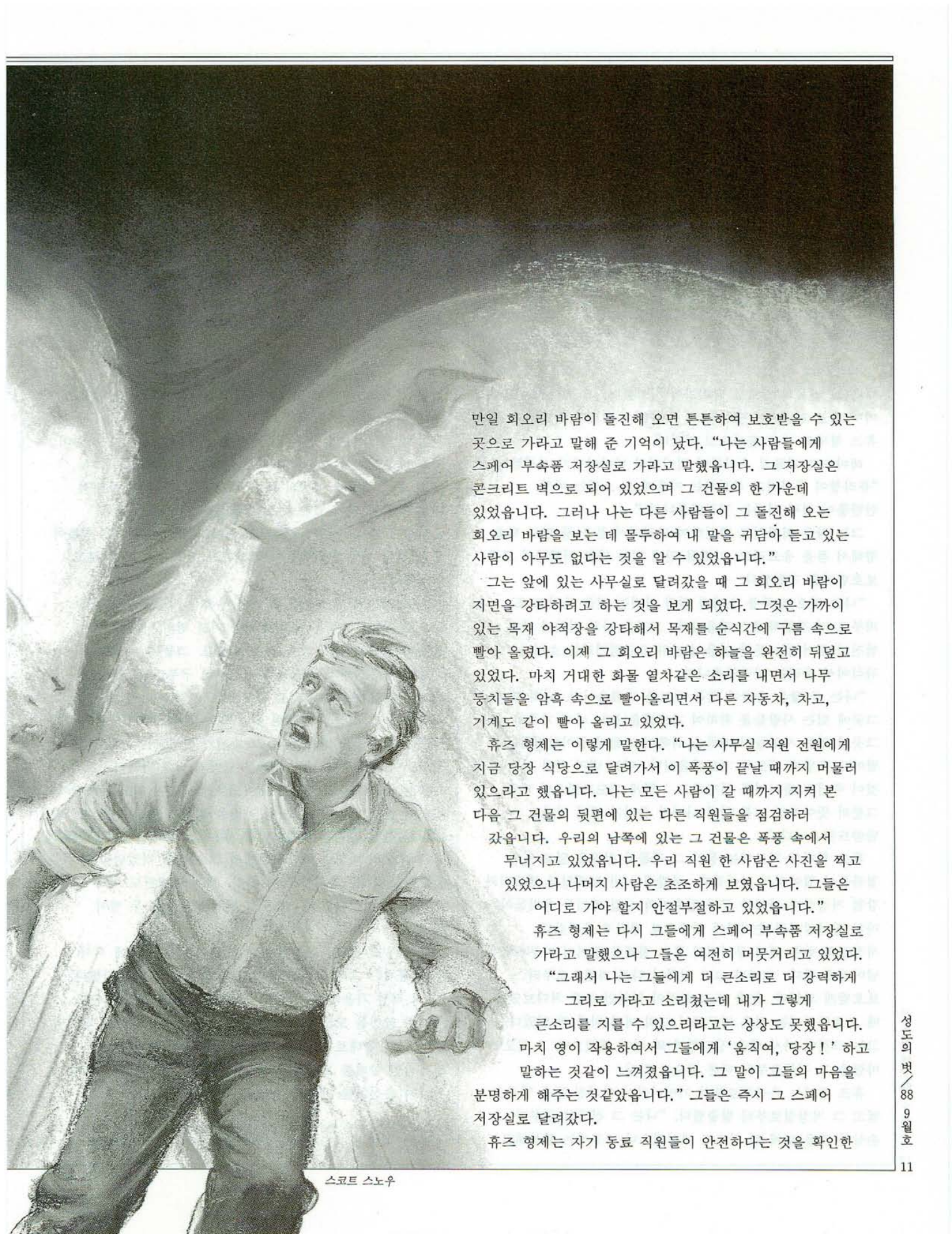
그날 그보다 앞서 휴즈 형제의 부인이 사무실에 들어서 퇴근하자고 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집으로 가고 싶은 느낌이 들었으나 ‘그대로 있어라. 너에게는 이곳에서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끝내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 속삭임에 귀기울이고 머물렀습니다. 아내에게는 곧 퇴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직후 그 도시의 일부 지역이 정전되었다. 그 사무실에 있었던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창문 밖을 보다가 남쪽으로부터 오고 있는 깔때기 모양의 회오리 바람 구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휴즈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것을 보자마자 마치 영이 나에게 ‘저 구름이 바로 이곳으로 돌진해 오고 있다. 이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같았습니다.”

휴즈 형제는 그의 동료들에게 그 돌진해 오는 폭풍을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지시하고 그 건물의 뒷쪽으로 달려갔다. 그곳에 있는 열두 명 남짓한 작업대원들도 역시 그 폭풍이 커지고 있는 것을 지켜 보고 있었다. 그것은 순간순간 더 커지고 있었다. 그 회오리 바람은 분명히 그들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었다.

휴즈는 미국에 산 적이 있는 어떤 친구가



만일 회오리 바람이 돌진해 오면 튼튼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해 준 기억이 났다. “나는 사람들에게 스페어 부속품 저장실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저장실은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 건물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 돌진해 오는 회오리 바람을 보는 데 몰두하여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사무실로 달려갔을 때 그 회오리 바람이 지면을 강타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가까이 있는 목재 야적장을 강타해서 목재를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빨아 올렸다. 이제 그 회오리 바람은 하늘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화물 열차같은 소리를 내면서 나무 등치들을 암흑 속으로 빨아올리면서 다른 자동차, 차고, 기계도 같이 빨아 올리고 있었다.

휴즈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사무실 직원 전원에게 지금 당장 식당으로 달려가서 이 폭풍이 끝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갈 때까지 지켜 본 다음 그 건물의 뒷편에 있는 다른 직원들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우리의 남쪽에 있는 그 건물은 폭풍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 한 사람은 사진을 찍고 있었으나 나머지 사람은 초조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휴즈 형제는 다시 그들에게 스페어 부속품 저장실로 가라고 말했으나 그들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더 큰소리로 더 강력하게 그리로 가라고 소리쳤는데 내가 그렇게 큰소리를 지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치 영이 작용하여서 그들에게 ‘움직여, 당장!’ 하고 말하는 것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말이 그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 스페어 저장실로 달려갔다.

휴즈 형제는 자기 동료 직원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 건물의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 회오리 바람은 이미 대로 건너편에 있는 트럭 회사를 부셨으며 달리고 있는 휴즈 형제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레이드로 건물의 유리창이 떨어져서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유리창이 흩어지고 폭발하는 가운데 그 소리는 마치 산탄총이 펑펑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작은 저장실로 피신하여 달려가서 문을 꽂고 벽을 향해서 몸을 웅크리고 그 건물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보호받기를 기원했다.

“나는 밖으로 폭풍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들었고 또 피부로 더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차나 젃트 엔진이 찢어지는 듯한 신음 소리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뒤섞여서 울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곧 짧은 순간에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와 함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나의 가족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을 위하여 그들이 굶어살피심을 받아 보호받게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 남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기도드렸으나 만일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휴즈 형제가 기도하는 동안 그 건물의 철골을 덮고 있던 철판들이 떨어져서 날아갔다. 바깥에는 반 트레일러 트랙터와 강철 저장실과 거대한 공기 압축기와 산업 폐기물 용기들이 마치 장난감처럼 순식간에 허공으로 튕겨져 올라갔다. 저장실의 한쪽 벽이 무너지며 휴즈 형제를 밀어서 마루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다른 파편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었다. 눈을 뜨고 천정이 있었던 곳을 쳐다보았을 때 으르렁거리는 검은 먹구름이 그의 머리 위에 와 있었다. 그는 그것이 다시 땅을 강타할까 봐 겁에 질렸으나 그 회오리 바람은 그 건물로부터 다른 곳으로 갔다.

휴즈 형제는 은신처로부터 기어나와서 망가진 문을 억지로 열고 그 저장실로부터 탈출했다. “나는 그 건물의 일부가 손상된 것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곳에는 원상대로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가 거대한 망치로 모든 것을 납작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앞쪽 사무실로부터 온 한 여인의 남편은 그 회오리 바람이 강타하기 직전에 도착해서 가까운 곳에 피신했었다. 그는 휴즈 형제와 함께 식당의 벽이 넘어지며 맞물려서 무너져 파편 무덤이 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 폭대기에 올라갔을 때 두 사람은 두 개의 벽이 엉성한 피난처를 만들어 준 구석에 사무실 직원들이 안전하게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안심했다.

휴즈 형제와 그 사람은 스페어 부속품 저장실이 있었던 곳으로 갔다. 그들은 그곳에 있는 너댓 명의 사람이 이미 돌무더기 밑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나머지 동료들의 은신처가 되었던 잔해로부터 구부러진 철근과 콘크리트 블록을 맨손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그 건물의 반대편 끝에 있는 잔해로부터 앞쪽 사무실 직원들을 끌어냈다. 그 파괴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사람만이 후유증이 남는 피해를 입어 허리를 다쳤다.

비상 구조대가 도착하여 레이드로 직원들이 회오리 바람에 뒤이어 쏟아지는 야구공만한 우박을 피하기 위하여 그 회사의 거대한 산업 폐기물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회오리 바람은 에드몬튼에서 그 이전에 겪었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파괴를 가져 왔다. 재산 피해만도 이익 오천만 불 이상이었다. 그 도시 전체에서 스물 두 명이 죽었다.

파괴된 레이드로 건물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서서 돈 휴즈 형제는 그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을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 직원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갔던 곳만이 유일하게 견디어 내서 어떤 형태로든 은신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전체적인 황폐를 보면 마치 주님이 손길을 뻗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은신처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

에일린 에프 엠 벨은 방송 해설자로서 캐나다의 앨버타주 에드몬튼 밀우즈 스테이크, 에드몬튼 제9와드 활동 위원회 위원장이다.

어느 날 구세주께서 죽어 가는 외동딸을 살려 달라는 회당장인 아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청을 받아 길을 가시는 길에 한 병든 여인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분은 발길을 멈추고 그녀를 위안해 주셨다. 그녀는 그때 이미 고침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이로의 집으로 가셨다. 어떤 사람이 그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려 주었으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의 집으로 가셔서 그녀를 다시 살려 주셨다. (누가복음 8:41~56 참조)

예수님은 가시는 도중에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도와 주셨다. 그분은 여러 번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니파이삼서 17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셨던 것을 읽게 된다. 그분은 그들에게 가르친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거니와 잃어 버린 이스라엘의 지파에게도 나를 보이리니, 이는 저들이 아버지께는 잃어 버려진 바 되지 아니하여 아버지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아심이라.”(4절) 그리고 나서 그분은 그들을 쳐다 보시고 그들이 울며 “조금이라도 예수가 저들과 함께 더 머물러 주시기를 바라는 기색을”

보셨다.(5절)

#### 기이한 일의 일어남

예수님은 머무셨다. 그분은 니파이인들이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병고침받게 하셨다. 그분은 너무나 훌륭하게 기도하셨으므로 그의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우셨다. 그들의 어린 자녀를 한 사람씩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분은 그들 앞에서 성찬 의식을 제정하셨다. 구세주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셨기 때문에 기이한 일들이 생겨 났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 가르치셨다. 그 사마리아인은 아마도 중요한 회합이나 약속 때문에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띄자 발길을 멈추었다. (누가복음 10:30~37 참조)

여러분은 학교나 교회나 시장 터에서 발길을 멈추고 곤경에 빠진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웃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또 성령의 속삭임에 응답해 본 적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는 말일성도와 기독교인으로서 더욱 기꺼이 발길을

# 기적을 행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사랑하고 봉사함

메리 엘렌 에드먼즈



구 세주는 시간을 내서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셨다. 그의 모범을 따르고 같은 일을 행함으로써 그분께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멈추고 도와 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선하게 될 기회를 활용하려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

어느 날 나는 친구와 함께 가다가 어떤 젊은 어머니가 꼼짝않는 트럭 옆에 서서 크게 낭패하여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녀에게는 아이도 여럿 있었다. 우리는 곧 차를 세우고 도와 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트럭의 휘발유가 떨어졌다고 했다. 우리는 그녀에게 자녀와 같이 있게 하고 그녀 대신 휘발유를 사 오겠다고 했다. 그녀는 도움을 고맷게 생각했으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꺼리는 눈치였다.

우리가 휘발유통을 채워서 돌아오자 그 여인은 고마와하면서도 우리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금 불편해 했다.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나는 그녀에게 “부인께서도 우리가 그러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마 똑같이 도와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 여인은 좀 생각해 보고는 미소지었다. 그리고는 “그렇군요.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날 그 친구와 내가 어디를 가는 길이었는지 기억이 안나지만 도와 줄 때의 훌륭한 느낌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나는 우리가 대부분이 발길을 멈추고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나 너무 바쁘거나 심지어는 겁먹기도 한다. 때로는 도와 줄 준비가 안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다급한 순간에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지침서같은 것이 없기도 하다.







그러나 주님의 “지침서” 안에 있는 것을 공부함으로써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성령의 속삭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스도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경전과 영보다 우리에게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는 없다.

사랑을 향한 여러 단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사랑, 영과 타인에 대한 호응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어** 떤 사람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긴박한 순간에는 여러분이 참조할 수 있는 지침서는 없다.

**주** 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치셨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가던 길을 멈추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시간을 갖고 있는가?



다음 몇 가지 제안이 도움이 될 것이다.

- 우리를 만나러 올 수 없는 사람을 방문한다.
- 구세주께서는 필요 사항이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셨다.
- 좀더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을 연습한다.
- 우리와 늘상 접하는 친구와 친지의 범주를 벗어나서 적어도 매주 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손길을 뻗어서 대화한다.
- 매일 사랑이 넘친 얼굴 표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다른 사람들이 비록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다른 사람을 쳐다보려고 노력한다.
- 다른 사람의 성공과 성취를 기뻐한다.
- 불편한 때나 심지어 희생해야 할 때라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쾌활하게 기꺼이 받아들인다.
-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나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
- 감사하는 태도를 배운다.
- 편지를 쓰거나 전화해야 할 만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즉각 행한다.
-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마음속에 생각되는 개인에 대하여 기도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에게 혹시 그가 시키실 일이 있는지 여쭙는다.

### 잊을 수 없는 경험

나는 몇 달 동안 웨스트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 살았다. 우리 지부에는 매우 소중한 한 어린이가 있었다. 그 여자 아이는 만 일곱 살이었으며 불과 10.5킬로그램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는 전세 예배당에 들어서면 그 여자 아이가 뒷자석에 앉아있는 것이 눈에 띄곤 했다. 나는 그 아이를 안아 올려 앞줄로 데리고 와서 모임이 계속되는 동안 안고 있기를 좋아했다. 그 아이는 마치 나에게서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한번은 성탄 절기에 그 어린 친구를 안고 있을 때 “내 구주 살아 계시다”(찬송가 36장)를 부르겠다는 광고 말씀이 있었다. 그 노래를 그 가사에 있는 대로 나 자신에게가 아니라 그 어린 아이에게 불러 주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나에게 권세있고 감미롭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으며 그녀에게도 마찬가지로 바란다. 그 가사 가운데서 — 사시는 줄세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위에서 널 변호하시며 — 를 부르는 동안 그 찬송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큰 축복이 나를 통하여 이 어린 소녀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주님의 손안에 있는 도구로서 다른 사람들이 약할 때 그들을 위안해 줄 수 있을 것이며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다고

찬송가에서 말해 주는 그런 것, 즉 시간을 내서 그들의 영혼의 불평을 들어주고 눈물을 씻어 주고 맘의 고통을 위로하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참여와 또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을 요구하시며 주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내가 발길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을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모두 발길을 멈추고 필요 사항이 있는 사람을 돕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필요함

나는 나의 많은 기도와 간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응답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이다. 주는 사람이거나 받는 사람이거나 모두 축복받으며 자신의 거룩한 잠재 능력에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 매리온 지름니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는 상호 의존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베풀어 주는 과정은 가난한 자를 높여 주고 부자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러는 중에 양쪽이 다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3년 1월호, 145페이지)

아프리카의 인사말 중에 아주 인상적인 것이 있다. 그곳에서는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면 “당신이 안녕하시면 나도 안녕합니다”라고 대답한다. 이러한 인사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가르친 것이 들어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는 우리는 많은 지체를 가진 하나의 본체로서 온갖 다양한 성격과 힘과 필요 사항과 경험을 갖춘 우리는 서로가 굉장히 또 계속해서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우리에게는 또 “더 약하게 보이는”(22절)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할 때도 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즐거워하니”(26절)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같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한 그분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좀더 가까이 하려 함으로써 시작한다. 상점이나 영화관이나 모임을 향한 발걸음을 기꺼이 멈추려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할 수 있다. 서로의 짐이 가벼워지도록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기꺼이 지려고 함으로써 할 수 있다. 애통하는 사람과 함께 애통하고 필요한 사람을 기꺼이 위로하려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모사이야서 18:8~9 참조)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것이 알려지고 또 그렇게 불릴 수 있도록 기꺼이 그분의 이름을 받들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니파이서 32:3) \*

# 찰즈 디데이 장로

기쁘게 인생에서 선한 일을 행함.

에드윈 오 헤를드슨

**그** 여행자는 1983년 10월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부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길고 지루한 비행을 하는 동안 저녁 식사로 나오는 것을 대부분 거절했다. 그는 위장보다는 마음을 채우는 데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들이 생일 선물로 준 책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함을 읽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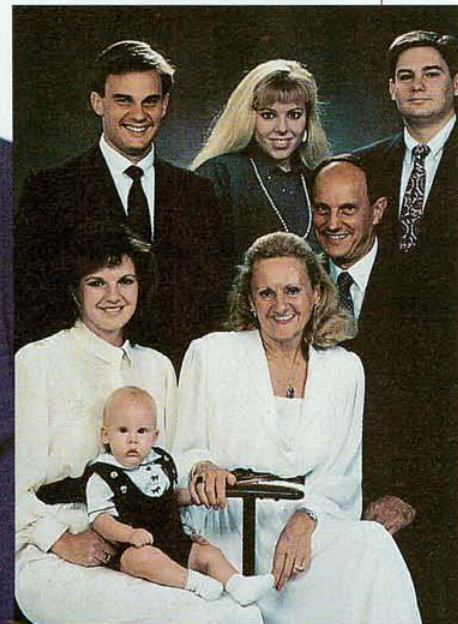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찰즈 디데이 장로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를 관리하는 교회의 집행 관리자로서 남미로

고향인 유럽에 있을 때나 북미나 남미의 집에 있을 때나 늘 같은 찰즈 디데이 장로가 아내인 루시(가운데)와 함께 한 가족 사진. 왼쪽은 장남인 패트릭과 그의 아내 카렌 및 아들 리차드, 오른쪽은 마르크 디데이와 아내인 조디.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 그는 비행기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도착하기 전에 그 책의 많은 부분을 읽고 나서 시간을 내어 쉬고 또 그를 기다리고 있는 일에 대하여 생각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그의 모습이었다. 찰즈 디데이 장로는 조국 벨기에에서 스물 두 살에 침례받은 이래로 교회를 위하여 맡은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헌신하고 열성적이었으며 기쁘게 인생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1935년 10월 5일 벨기에의 익셀에서 태어난 찰즈 디데이 장로는 벨기에 육군 장교인 부친 안드레가 세계 제 2차 대전이 시작될 때 붙잡혔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부친은 탈출한 다음 숨어 지냈으며 가끔  
예고없이 방문하여 가족을 만나 보았다. 디데이 장로는  
아홉번째 생일을 지낸 어느 기간을 이렇게 회고한다.

“비밀 경찰이 찾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배되어 있었고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우리는 안트와프 지방에서 부친이 숨어  
있는 곳으로 갔으며 그곳으로부터 플랜더스에 있는 중조  
할머니에게 가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 후 벨기어가  
해방되었다. “나는 군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는 것과  
비행기가 오는 것과 총성과 동맹군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찰즈도 소년 시절에 천주교  
교리를 교육받았다. 그는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석했으며 그  
가족 안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뿐이었다.

1950년 그 가족은 벨기에의 나무르에서 살았는데, 찰즈가  
중학교를 마칠 즈음에, 미국에서 온 두 명의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그들의 문을 두드렸다. 그의 어머니인 가브리엘이  
그들을 불러 들여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 다음 해 부활절  
명절 기간에 어머니는 브뤼셀에 있는 작은 침례당에서  
침례받았다. 그러나 찰즈는 그 침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는 당시 천주교에서 계획한 여행을 떠나 교황을 보러

로마로 가고 없었다.

찰즈는 그 지방에 있는 지부에 참석하라는 초청을  
거부했으나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영어 클럽에는 참석하였으며  
밤에 젊은이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떠났는데 그것은  
그가 “함정에 빠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지부 연극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았으며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일요일에 함께 교회에 참석할 것을 권유했다. 곧 이어 그의  
누이인 재클린이 침례받았다. 리에즈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하여 집을 떠났을 때의 상황을 그는 이렇게 말한다. “가끔  
청년 활동에 참석했습니다. 나는 늘 몇 가지 작은 활동을  
했지만 참여하고 싶지는 않았었습니다. 나는 매우  
수줍어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사람들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던 중 선교사인 두위트 폴 장로가 왜 침례받지  
않느냐고 물으며 그에게 도전해 왔는데 그것은 당시 자신이  
“회원이 하는 것을 모두 다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디데이 장로는 회상한다.

“나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참석하지만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물몬경과 요셉 스미스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 형제님이 간증이 있으면 침례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 기도를 마칠 때 간증 -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빛이나 음성같은 것은 아니었고 단지 다시 확신시켜 주는 영향력이었습니다. ‘가서 행하라. 그것에 지혜가 있나니 이것은 나의 계명이라.’” 찰즈는 1957년 11월에 폴 장로에게서 브뤼셀에 있는 수영장에서 침례받았다.

그는 리에즈와 나무르 사이를 여행하면서 리에즈 대학에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1959년에 경제학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그런 다음 벨기에 공군에서 예비역 장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중위로서 또 레이더 책임자로서 군 복무를 마쳤다.

입대 직후 리에즈로부터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곳에 배치된 그는 리에즈 지부에서 만난 갈색 눈의 소녀인 루시 로도메즈와 데이트할 시간을 가졌다. 루시는 언니인 제클린과 함께 불란서에서 선교 사업을 마쳤다.

군복무가 끝난 후 루시와 찰즈는 리에즈에서 결혼하고 (그들은 1962년 스위스 성전에서 인봉받았다.) 그곳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갔다. 찰즈는 목재 제품 수입 회사에서 근무하며 승진하고 두 사람 모두 교회 봉사를 통하여 성장했다. 그는 교회에서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받았으며 마침내 리에즈에 있는 100명의 회원이 있는 지부의 지부장이 되었다.

그러나 리에즈에서 오 년 동안 일한, 찰즈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 그는 가르치거나 계속해서 교육받을 가능성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자 “기도에 대한 또 하나의 응답”이 왔다. 그는 구라파에서 교회의 실무 책임자인 존 이카의 보조로 일하도록 독일의 프랑크 푸르트로 이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곳에 이사가서 9개월밖에 살지 못했다. 그는 리에즈로 돌아가서 교회 번역 출판부를 책임맡으라는 청을 받았다. 돌아오자마자 그는 다시 리에즈 지부장으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1970년 3월에 솔트레이크시티로부터 온 전화를 통하여 찰즈 디데이의 생애에 놀라운 일이 닥쳤다.

“그 전화는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형제님을 선교부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형제님은 삼 개월 이내에 출발하여 어디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예상하지 않았던 전화는 그의 생애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다. 삼 년 후 불란서, 스위스 선교부의 선교부장의 직에서 해임되기 직전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디데이는 장로는 지역 대표로 부름받았으며 동시에 구라파 전체에 교회 자료를 번역하고 배부하는 것을 담당하는 지역 책임자로 지명받았다.

그런 후 1975년 10월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 디데이 장로는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이 만나고 싶어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곧 조직하게 될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았다.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 계획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어떤 일들은 장차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총관리 직원 부름이 올 때 문을 닫고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나는 100퍼센트 하나님의 손 안에 들었다. 나는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겠다.’”

디데이 장로는 유럽 지역 담당 교회 집행 관리자가 되어 브뤼셀로부터 열 네 선교부를 관리했다. 후에 그는 캐나다에서 교회 활동을 관리하는 부름을 받았으며, 그 후 1981년에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에 있는 선교부와 스테이크를 관리하는 부름을 받았다. 1984년 열 세 개의 새로운 지역 회장이 부름받게 됨에 따라 그는 원래 브라질이 포함된 남아메리카 북부 지역의 회장직을 맡았으나, 현재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기아나 및 볼링 기아나도 포함된 지역의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디데이 장로는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 거주하고 있다.

비록 총관리 직원으로서 그의 의무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지만 그는 아직까지도 정원 관리, 낚시, 수채화, 요리, 독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취미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생활에 훌륭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언어학에 대한 그의 관심은 소중한 재산이다. 그는 모국어인 불어 이외에도 영어, 독어, 화란어, 서반아어를 한다.

날씬하고 민첩한 디데이 장로는 신체적 상태를 훌륭하게 유지한다. 그는 훌륭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총관리 직원으로서 필요한 힘든 여행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그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진 알 쿡 장로와 자주 라켓볼을 친다. 쿡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정말로 운동을 잘 합니다. 그는 수영을 많이 하며 삼사십 바퀴를 거뜬히 돕니다. 그는 매일 운동합니다.”



총관리 역원이 되게 한 개종자의 사진  
중에서

그런 운동의 일부는 육체 노동을 통하여 행한다. 디데이 장로 가족의 워드(솔트레이크 엔사인 스테이크, 엔사인 제4워드)의 리이드 헤이우드 감독은 디데이 장로와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집을 짓던 것을 회상하고 있다. 그들은 돌을 끌어오고 지주 벽을 세우며 돌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일하고 있었다.

“나는 육체 노동의 가치를 믿습니다. 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디데이 장로는 말한다. “나는 솔트레이크시티나 남미에 있을 때 사무실이나 집회에 매일 여덟 내지 아홉 시간 간헐 있게 됩니다. 나는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라켓볼이나 수영이나 그림이나 여름에 정원을 가꾸는 일에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김볼 대판장님이 우리에게 소채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몰 세 그루의 과일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는 자연에 가까이 되돌아와서 손에 흙을 묻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의 송어 낚시 방식은 자연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많은 활동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을 잘 나타내 준다. 그는 자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자신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과 낚시하러 간다. “나는 배울 것이 많이 있으며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가 많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다. 그는 어머니가 “굉장히 요리를 잘 하셨다”고 기억한다. 그의 초콜릿 디저트는 그의 가족의 전통이 되고 있다.

1983년 11월에 그는 페어 옥스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스테이크 부장의 집에 일찍 도착한 그는 그 가족의 소채원으로 안내받았다.

“나는 그가 벨기에에서 흔한 채소인 부추를 재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전에 이 채소를 키워 본 적이 없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나는 ‘스프를 만듭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 밤 대회를 마친 후 스테이크 부장과 함께 부엌에서 다음 날 고등 평의회 및 기타 지도자 스몰 두 명에게 대접할 부추 스프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아마 그곳에서 총관리 역원보다는 스프 만드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데이 장로가 기쁘게 남과 함께 나누는 또 다른 것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나누는 것이다. 그의 아들 패트릭은 이렇게 말한다: “그는 누군가 필요 사항이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자신의 시간을 바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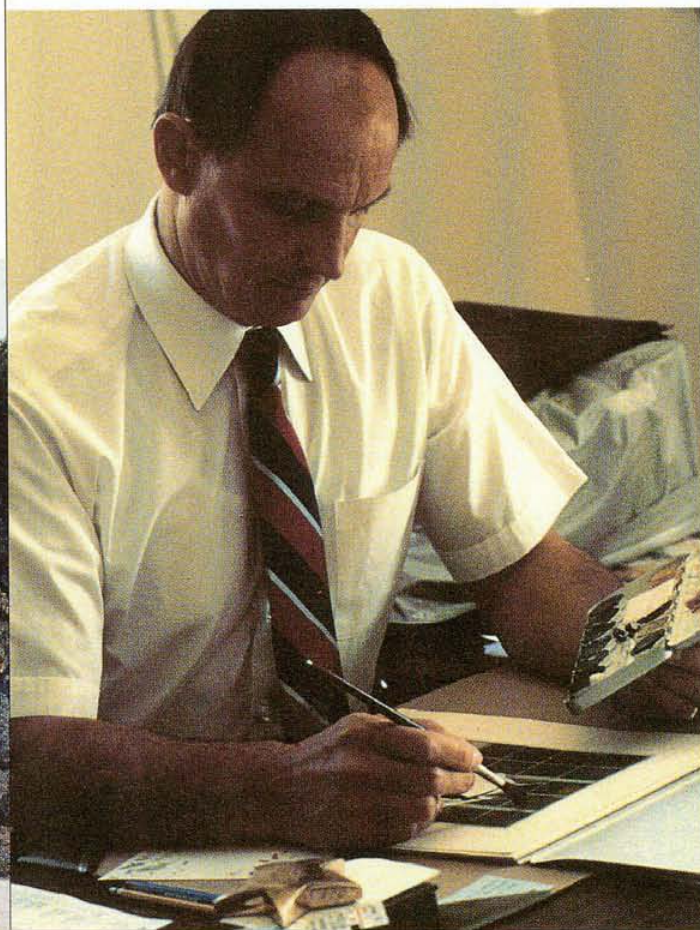
이웃 사람인 베니스 로저스는 이렇게 덧붙인다. “그는 어린이에게 매우 상냥합니다.”





총관리 역원으로서의 임무로 말미암아 디데이 장로와 그의 아내는 카이로, 애굽, 마스 힐, 아테네, 그리스 등 사도 바울이 신약전서 시대에 가르쳤던 많은 곳을 가야했다.

이 장식된 양의 머리 그림은 화가로서 디데이 장로의 기술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한번은 로저스 가족이 휴가차 집을 떠났을 때 디데이 부부는 몰래 침대인 엘리자베스 로저스의 방에 벽지를 발라 주었다. 엘리자베스는 감격했다.

디데이 장로는 다른 이웃 집 어린이들과 그가 창안해 낸 “엘리베이터”놀이를 한다. 그 어린이들이 그의 외투의 맨 꼭대기 단추를 누르면 그는 그들을 높이 들어올린다. 그들이 밑의 단추를 누르면 그는 그들을 밑으로 내려 준다.

디데이 장로가 봉사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그의 조상을 위한 “선교 사업”을 행하는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계보 도서관에서 자기 부모와 처가집 가계도를 조사하면서 몇 시간씩 보냈으며 때로는 밤에 두 세 시간씩 보내기도 한다. “나는 아직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성공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대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것을 성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디데이 장로는 그가 성취한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는 총관리 역원이 되는 것은 “자신과 자기 가족에 대한 매일 매일의 시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총관리 역원은 교회의 공식 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원들은 총관리 역원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거룩한 부름에 보조를 맞춰 나가려고 노력해야 하며 훨씬 더 중요한 주님의 기대뿐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 생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와 같이 도전해 나가는 그의 목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 가족에게 자기 자신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주님이 원하실 방법 그대로 주님을 대표하고 주님이 행하실 방법 그대로 그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브리감 영 대학 교수로 재직하기 전에 전문 언론인이었던, 에드윈 해롤드슨은 현재 은퇴하여 대학의 신문학과 강사로 일하고 있다. 그와 그의 아내 클레오는 프로보에 살고 있다.*



나는 열 다섯 살이 되었을 때 성경을 사기로 결정했다. 불안한 생각이 마음 속에 커져서 존재의 이유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

나는 자주 하늘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사시며 그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의문을 품었다. 나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이 참되다고 믿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인식했다. 나는 경전을 사랑했으며 나의 이 큰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에게 큰 영향을 준 한 가지 원리는 신앙의 원리였으며 병고침의 은사, 기적의 은사, 계시의 은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영의 은사도 역시 영향을 주었다. 나는 만일 사람에게 충분한 신앙이 있으면 참으로 산도 움직일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가슴 벅차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의 기쁨을 모든 친구와 함께 나누려고 노력했다. 가장 친한 친구인 프랑코에게 맨 처음으로 나의 믿음과 내가 공부한 결과를 이야기했다. 우리는 자주 인생의 신비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은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비록 이런 것을 친구들과 함께 토의하기는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이 길을 혼자서 걸으며 어떤 종교 단체에도 가입하기를 거부했는데 그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키움으로써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독서를 통하여 배운 것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서 확고한 “진보”를 느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은 내가 대답을 찾을 수 없는 다른 질문으로 이끌고 갔다.

어느 날 진리의 추구를 계속하면서 우리 집에 있는 여러 책 가운데 한 권, 즉 물문경을 찾았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 모른다. 아마 어떤 선교사들이 몇 년 전 우리 옆집에 살 때 어머니에게 주었을 것이다.

물문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나는 나에게 훌륭한 너무나 실제적인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이미 사랑하고 있는 거룩한 경전을 쓴 저자가 방금 찾아낸 이 새로운 경전의 저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새로운 경전은 내가 이전에 읽은 것들의 참됨을 확인해 주었다.

내가 경험한 가장 큰 축복은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 속에 생겨났던 모든 질문들이, 물문경을 읽고 있는 동안에 해답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물문경은 성경 구절에 대한 빛을 더 첨가해 줌으로써 더 큰 이해력을 밝혀 주었다.

이 말일에 우리에게 물문경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는 나의 믿음을 확인해 주었다.

# 나는 저자를 알았음

로베르토 메인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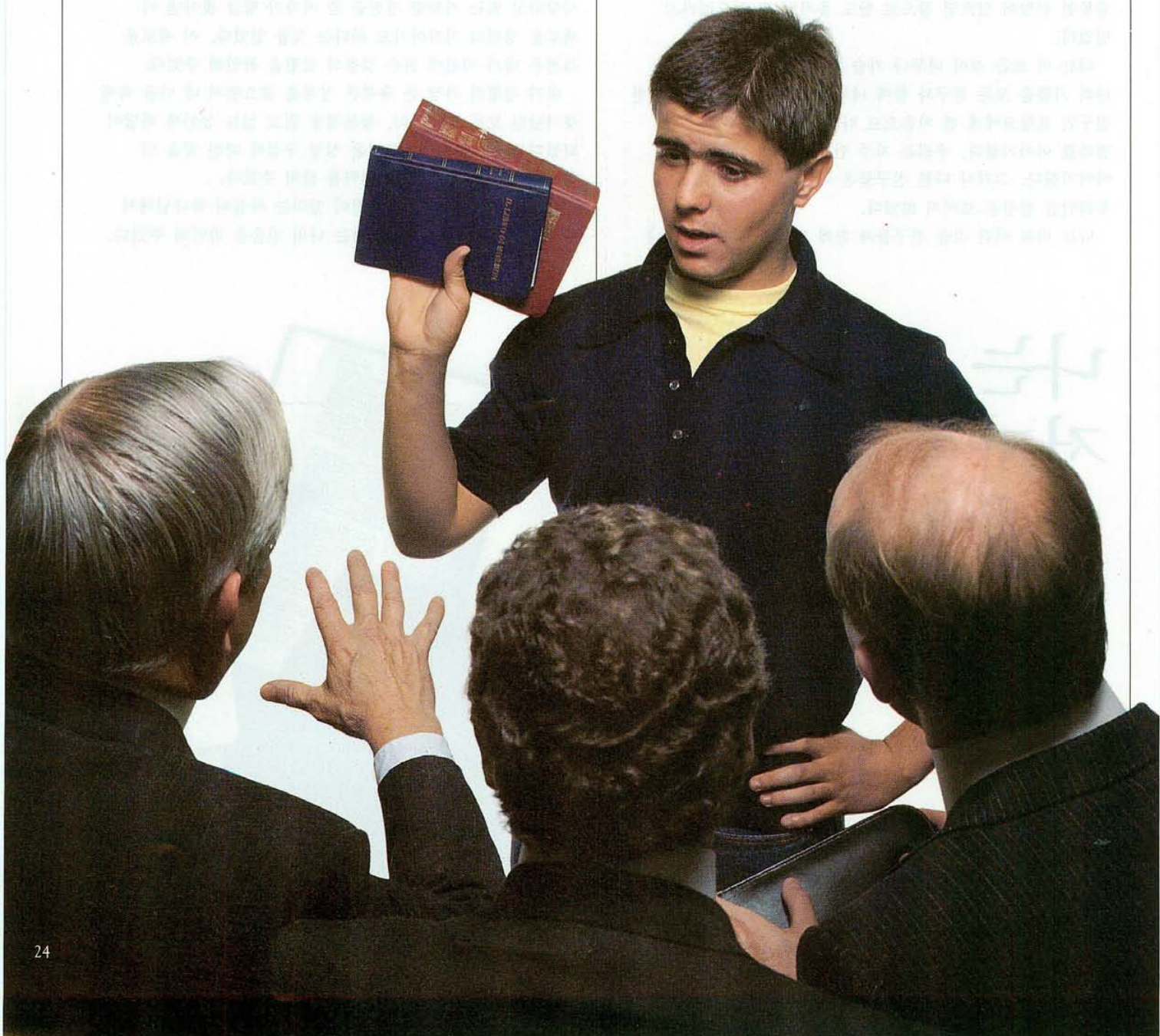


어느 날 나는 몇몇 성직자들의 방문을 받았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를 통하여 또 다른 경전을 집성해서 인간에게 주신 기적적인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 주었다. 그 성직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은 악마가 나타내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런 의견을 같이 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읽은 것은 어디에서나 훌륭하게 조화되고 있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그 당시 나는 에스겔의 예언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 나는 두 “막대기” 즉 유다의 막대기(성경)와 요셉의 막대기(물문경)를 취하여 그것을 내

손과 가슴에서 하나로 만들었던 것이다.(에스겔 37:16 참조)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느 교회에서 물문경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다. 이태리의 밀라노시 중심지에서 가두 전도를 하면서 물문경을 인용하며 가르치는 선교사들을 알게 된 것은 내가 열 여덟 살이 되었을 때의 일이었다.

나는 몇 개월 후 경전의 인도와 뒷받침을 받아 침례받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왔다.\*



# 선한 스위스 “사마리아인”

카렌 엘 브라운. 우리는 가족 휴가차 장관인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차의 동력이 모두 다 없어졌다. 남편인 플로이드가 절벽길 옆으로 차를 대고 다시 시동을 걸려고 했다. 갑자기 ‘뽕’하는 소리가 크게 났다. 남편은 “괜찮아, 배기관에서 나는 소리일 따름이야”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나는 자동차의 뒷 창문 밖을 보게 되었다.

나는 차 밑에서 불길의 솟아올라, 자동차 뒷부분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다.

나는 “불이야!”라고 소리쳤다. 남편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모두 다 당장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치며, 달려와 옆문을 열어 우리가 나오게 하였다. 열 여섯 살 된 딸과 여섯 살 된 딸은 즉시 차 밖으로 기어나와서 위험을 피하여 길을 따라 달려 내려갔다. 맨 발에 겁에 질려 있는 네 살짜리 아들이 다음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그 아이도 금시라도 폭발할 것으로 생각된 그 불타는 차에서 멀리 달아나게 했다.



아기와 내가 마지막이었다. 아기를 자동차의 좌석에 묶어 두었던 벨트를 푸는 시간이 영원한 긴 시간같이 생각되었다. 남편은 우리를 꺼내 주어 우리도 달렸다.

그 불타는 차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를 때 한 젊은 불란서인 부부가 차를 세웠다.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 남자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전화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의 부인은 내가 아이들을 진정시키는 것을 도와 주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트럭 운전수가 차를 세워 자기 차에서 소화기를 꺼내서 불을 끄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남편을 도와서 우리 짐을 거의 다 견지게 해주었다. 차는 계속 불타고 있었다.

그렇게 되자, 농부들은 집에서 나와 이 소동을 지켜 보았다. 곧 커다란 소방차 한 대와 여러 대의 경찰차가 도착했다. 곧 소방대원들이 그 불을 끄고 우리의 남은 짐을 꺼냈다.

우리는 여행용 가방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까맣게 타 버린 차만 남은 캘리포니아의 우리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스위스의 고속도로 옆에서 곤경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하고 또 우리의 짐이 대부분 무사한 것에 대하여 안도의 숨을 내쉬며 감사하고 있었다.

남편이 “누구 영어 하시는 분 없습니까?”라고 희망을 품고 물었다. 그러나 모두 멍한 표정을 짓고 어깨를 으쓱할 따름이었다.

그 순간 한 남자와 아들이 앞으로 걸어나왔다. “우리 집으로 가십시오”라고 그는 더듬거리는 영어로 말했다. “우리 집으로 가십시오” 그는 계속 넘어 있는 작은 오두막집을 가리켰다. 그의 작은 차로 우리 식구와 또 그곳에 있는 짐을 모두 그의 집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세 번이나 왕복해야 했다. 새로 생긴 친구의 부인과 가족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의 피곤한 아이들을 침대에 눕혀 주고, 우리가 짐을 모두 다 정리하고 다시 싸는 것을 도와 주었다.

그 부인은 영어를 완벽하게 했으며 우리는 밤 늦게까지 주인 식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그 다음 날 아침 떠날 준비를 할 때가 되었을 때에야 그들도 말일성도라는 것을 알았다. 그로 인하여 그 주인 가족이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알프스 산맥에서의 그 날은 우리 휴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무서운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또 우리가 우연히 발견한 복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인 그 스위스 가족과 또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 준 사랑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

가정 주부인 카렌 엘 브라운은 캘리포니아주 엔시니타스 와드의 초등학교 교사이다.

# 어지럽힘이 없는 신앙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 단

순하고 어지럽힘이 없는 신앙을 쌓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성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우리의 진보를 더 튼튼하고 빠르게 해줄 것입니다.

몇 달 전 나는 다른 총관리 역원과 함께 아름다운 타이티 섬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새벽 네 시경에 파피에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빅터 케이브 지역 대표가 인솔하는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우리 짐을 찾아서 그날 하루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호텔로 갔습니다.

이른 새벽 빛 속에서 차를 타고 조용한 거리를 달리다가, 케이브 형제의 차 앞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케이브 형제는 그 사람이 길을 건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하여 차의 속도를 늦추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형제님은 이곳 와드 회원입니다. 그는 성전에 가려고 저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성전의 첫 의식은 아홉 시 이전에는 시작하지 않지만 그는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그가 얼마나 먼 곳에 삽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두 서너 골목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삽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케이브 형제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찍 성전 문을 열면 이 형제가 들어와 아름다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거룩한 땅에 와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명상하고 사색하기 위하여 수면이나 다른 활동을 기꺼이 포기하는 이 사람의 신앙에 감탄했습니다. “참 바보같은 것이야! 잠자거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충실한 사람이 이 명상과 사색의 시간에 자신과 자신의 창조주를 알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것처럼 단순하고



어지럽힘이 없는 신앙을 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합니다. 동시에 나는 여러분이 사소하고 복잡한 것과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같은 갈등과 같이 보이는 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엇이라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지적인 교만을 만족시키고 모든 대답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와 지식을 찾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어지럽힘이 없는 신앙을 쌓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성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보를 더 튼튼하고

빠르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 은사와 성취력은 새로운 성장이나 지식에 의하여 항상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니파이는 그의 형들이 너무나 약해지고 영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비록 천사를 보고 천사의 말을 들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작고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으나 “마음이 무디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니일 17:45 참조) 니파이는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32:3 참조)

## 다 아 없어진 지침서

나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랐습니다. 비록 그는 지적이고 능력이 있었으나 학교에서는 좋은 학생이 못되었습니다. 집안의 필요 사항과 걱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고등 학교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낡은 고물 트럭을 한 대 살 수 있었으며 몇몇 건축업자를 위하여 모래와 자갈을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계절을 타는 일이었으며 그다지 생산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낡은 트럭은 자주 고장이 나고 수리해야 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여인과 결혼하여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웠으나 어떻게든 가가스로 그들 자신의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시 감독이었으며 그를 아론 신권 고문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름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지침서를 너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다 닳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와드 내의 청남이 아론 신권에서 승진할 연령에 도달할 날짜를 모두 다 적은 노트를 한 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남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감독단이 계속해서 그들의 활동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몇 년 후 내가 감독에서 해임된 이후로 그는 감독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부름에 충실하게 응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우리의 감독이 되었으며 너무나 훌륭하게 봉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친지 한 사람과 함께 벽돌 쌓는 법을 배워서 벽돌 쌓는 합작 사업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 다 매우 훌륭하게 일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번영하여 그 지역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감독으로서 여러 해 동안 성공적으로 봉사한 후 그는 스테이크 고등 평의회에 부름받고 훌륭하고 충실하게 봉사했습니다. 비록 그는 정규 교육을 고등 학교 졸업 이전에 끝냈지만 지금은 존경과 칭송을 받는 사업가입니다. 대학 교육이라는 혜택을 받았다면 그가 더 많은 것을 달성했을



**하** 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세상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시다.

**요** 셉 스미스는 충만하고 완전한 복음을  
회복시키는 도구였었다.



재림, 해리 앤더슨 작

예언자 요셉 스미스, 데드 헤닝거 작

#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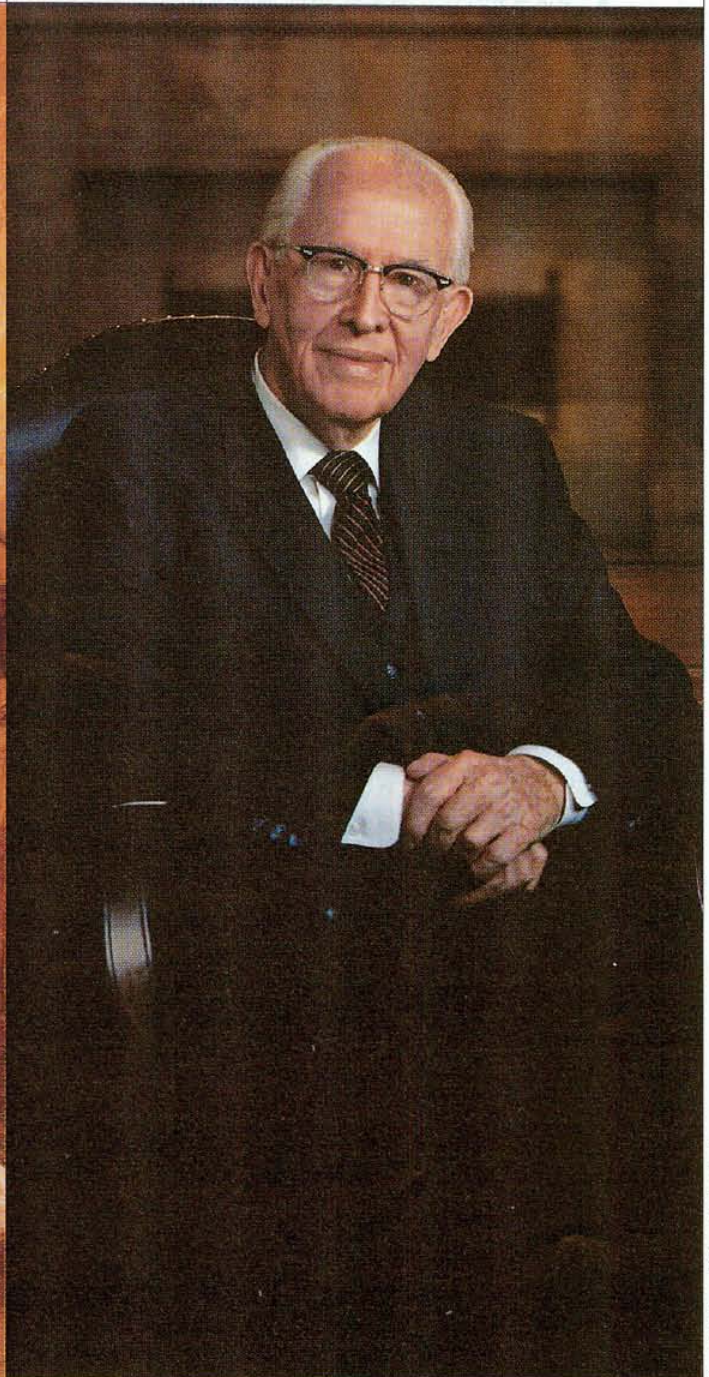
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씀했듯이 우리 종교의 종석이다.



물문경의 번역, 어얼 존스 작

# 에

즈라 테프트 벤슨은 교회 대관장으로서 그의 모든 전임자가 그랬듯이 요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열쇠와 권능을 갖고 있는 계승자이다.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버세드 영 사진

것은 자명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근면성, 근검, 절약, 자립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있었습니다. 그는 충실하고 근면하게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고 애썼습니다. 그에게는 단순하고 어지럽힘이 없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 더 훌륭한 교사는 없었음

스티븐 엘 리차즈 부대관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육신과 영의 결합체인 불사 불멸의 영혼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와 우리의 만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받게 됩니다.”(1945년 4월, 대회 보고) 이렇게 거룩한 성품을 받게 되면 우리의 은사와 능력이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품보다 더 훌륭한 교사와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예언자와 그 이외의 교회 지도자도 역시 위대한 교사들입니다. 나는 총관리 역원이 되어서 연차 대회에서 정해진 자리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하여 대회의 모든 모임에 귀기울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우리 아들이 대회 메시지를 검토하라는 세미나리 숙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대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모두 다 충실하게 귀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아들이 생각에 잠겨서 “총관리 역원 형제님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분들의 메시지의 기본 주제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총관리 역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살아 계신 예언자들은 영원한 시야를 열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훈계를 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젊은 스테이크 부장으로서 총관리 역원들이 우리 스테이크 대회에 오실 때 그분들을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경험이었습니. 휴 비 브라운 부대관장님이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부름받고 지지받기 일주일 전에 우리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많은 성품과 훌륭한 유모어를 접하고 기뻐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외투를 입으시는 것을 도와드리고 그분과 함께 그의 차로 걸어가면서 “브라운 장로님, 저에게 개인적으로 충고해 주실 것이 있으십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예, 총관리 형제님들을 따르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택하지는 않았으나 그 강력한 메시지, 즉 총관리 역원 형제를 따르라는 단순한 신앙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우리 할머니인 마우드 윌켈 파우스트는 어린 손자들에게 бри감 영 대관장님이 관리하실 때 연차 대회에 참석하시던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곤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제외하고는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대관장을 아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관측해 온 것을 통해 “총관리 역원의 말씀에 등을 돌린 사람은 변성하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 자기 자신을 어지럽히지 않음

교회를 비판하는 무리들은 지도자들의 인간적인 약점으로 인해 이 기이한 업적에 의문을 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을 제외한, 과거와 현재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인간적인 실패와 약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은 수년 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수를 강조하고 더욱 큰 선을 무시하는 것은 만화를 그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화는 재미있지만, 보기 흉하고 부정직한 것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에 사마귀가 있어도 여전히 아름답고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른 특색에 비하여 사마귀가 과도하게 강조되면, 초상화는 흔히 정직성이 결여되게 됩니다.”(처치 뉴스, 1983년 7월 3일, 11페이지)

이어서 힝클리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초기 지도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했거나, 또는 그들의 성품이 어떤 면에서든 약간의 결점이 있다 해도, 그들이 그처럼 많은 것을 성취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공통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갖기를 촉구한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이와 같은 권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며, 아담은 누구이고,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여호와와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왜 이러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고, 성신은 성신이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과 내가 알기에 충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이상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직접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빛과 진리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보편적인 것들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십시오.”(윌포드 우드럽 설교집, 지 호머 더럼 편,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46년, 135~136페이지)

“왕국의 보편적인 것에 대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은 영적인 무죄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빈정거림과 비판을 피해야 합니다. 현재는 빈정담과 비판의 시기입니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말씀했습니다: “비판은 이혼의 앞장 서는 것이며, 모반을 양육하고, 때로는 실패로 이끄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그것은 비활동과 마침내는 배도로 이끕니다.”(처치 뉴스, 1983년 7월 3일, 10페이지)



# 몇 가지 기본 원리

영적인 순결—단순하고 어지럽힘이 없는 신앙—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몇 가지 절대적인 원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들은 기본적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

1. 아버지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입니다.
2. 요셉 스미스는 도구로써 그를 통하여 복음이 충만하고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3. 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한 대로 우리 종교의 종석입니다.
4.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과 그보다 먼저 교회 대관장이었던 분이 모두 다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된 열쇠와 권능을 소유한 후계자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어지럽힘이 없는 신앙과 이러한 절대적인 원리는 하나같이 모두 다 진실이라는 영적 확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어지럽힘이 없는 신앙은 기도하고 연구하며 계명을 기꺼이 지키려는 겸손한 마음을 통하여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합시다. 첫째 기본 원리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이천 년의 가르침과 전통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한 다음에는 이 기본적인 원리가 적어도 일차적으로는 가장 받아들이기 쉬울 것입니다.

두번째 기본 원리인 요셉 스미스가 회복의 예언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정직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좀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 스미스의 사명의 위대함을 공정하게 인식하기 위하여 뒤로 물러서서 그 모든 것의 장엄한 전경을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의 사업의 장엄함과 성공에 대한 유일한 논리적인 설명은 그가 보았다고 말한 것을 보았으며 그가 자신이 말한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너무나 자명한 요셉 스미스의 사업의 열매도 또한 그의 사업의 신성함을 간증합니다.

세번째 기본적인 원리, 즉 몰몬경의 참됨에 대한 간증은 내 의견으로는 모로나이가 말한 그대로 성신의 권세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이 책이 참된 것인지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 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집니다 :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모로나이서 10 : 4)

네번째 기본 원리는 어지럽힘이 없는 신앙을 갖기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이 요셉

스미스 이후의 그의 선임자들과 마찬가지로 회복된 열쇠를 상속받은 분이라는 명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세주와 요셉 스미스의 신성한 사명과 몰몬경은 받아들이면서도 요셉의 시대 이후로 어떤 일인지 총관리 역원들이 길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으며 그들의 노력은 번성하지 못하였습니다.

# 열쇠를 물려줌

권능의 계승을 뒷받침해 주기 위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한 가지 강력한 선례가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베드로는 선임 사도로서 교회의 대관장이 되었습니다. 신권의 열쇠가 요셉 스미스에게 회복된 이래로 교회 대관장의 직분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이 관행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도는 누구나 사도 직분과 십이사도 정원회에 성임되면서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의 모든 열쇠를 받습니다. 그 중 어떤 것은 교회 대관장이 별세할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게 됩니다. 교회 대관장이 별세하면 그 열쇠는 한 조직으로써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새 대관장이 성임받고 성별되면 십이사도 평의회는 다 함께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가 사도로 성임받은 이래로 갖고 있던 열쇠를 활용하게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열쇠를 부여한 이래로 늘 그랬습니다. 이것은 또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열쇠와 권능을 물려줌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실되게 오늘날 지상에 신권 권능이 있기 때문에 벤슨 대관장이 그 열쇠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집행하는 의식과 계명에 대한 순종과 더불어서 이런 네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 생에서 화평을 얻고 다음 세상에서 영생을 얻게 되리라는 구세주의 약속을 누리기 위한 확고한 기반입니다. (교성 59 : 23 참조)

나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로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으며 그가 지상에 교회를 충만하게 다시 세우도록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또 몰몬경의 거룩하고 참된 메시지에 대하여 간증드립니다. 나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이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의 업무를 집행할 열쇠와 권능을 모두 다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새벽 네 시에 성전을 향하여 급히 가느라고 파피에테에서 길을 건너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지럽힘이 없는 양심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어지럽힘이 없는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이기적이고 천하고 탐욕적인 면을 넘어서서 화평과 영생을 향하여 승화되게 해줄 수 있습니다. \*

유타주 프로보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행한 말씀에서 발췌



# 멕시코에서의 마라톤

브리기다 에이 디 페레즈. 나는 결코 잊지 못할 한 가지 경험과 교훈을 나누고자 한다.

몇 년 전 멕시코의 인접 도시인 알토칸과 후에우틀라 사이의 십칠 킬로미터 “마라톤”이 개최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 시합이 있기 한 달 전에 나는 일흔 두 살의 남편, 리온이 “몇 킬로미터를 시험삼아 달려 보고 나 자신을 시험해 볼 거야. 그리고 잘되면 그 시합에 출전할 거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 하여 어느 이른 아침에 그는 일정 거리를 달리는 일에 도전했다. 그는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 그가 택한 코스는 내리막 길이었으므로 쉬웠다. 그러나 나는 그 마라톤 코스는 대부분 오르막 길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남편은 가족의 격려에 힘을 얻어서 그 시합에 출전하기로 결심했다. 우리 아들들은 남편에게 좋은 런닝화를 사 주기까지 했으며 그 중 하나는 그 마라톤에 같이 출전했다.

그 시합날인 11월 26일이 도래했다. 남편과 우리의 서른 여덟 살 된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 마라톤에 참가한 사람은 모두 다 이십대 초반이었다. 남편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자신에게 알맞은 안정된 속도를 정했다. 우리 며느리와 나는 이삼 킬로미터씩 달릴 때마다 남편에게 물을 주기 위하여 차를 타고 따라갔다. 남편이 십 킬로미터를 달렸을 때 나는 그에게 “영감, 멈추고 다른 사람들처럼 잠깐 쉬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아니야. 쉬지 않을거야. 만일 쉬면 결승점까지 가지 못할 거야”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똑같이 안정된 속도로 계속해서 달렸다.

길 가에 구경꾼이 많았으며 그들은 칠십 이세 된 노인이 달리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남편이 십 오 킬로미터를 달렸을 때 나는 주님에게 그가 끝까지 완주할 힘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마음 속으로 드렸다. 손자 하나가 “할아버지, 잘 하십니다. 이제 2킬로미터만 더 가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며 그를 응원했다.

그의 자녀와 손자 및 모든 사람이 그를 응원해 주고 있었다.

마라톤을 시작한 서른 두 명의 경기자 가운데 남편과 아들을 포함하여 여섯 명만이 완주할 스테미너를 갖고 있었다. 일등한 젊은이는 한 시간 오십 분 만에 끝이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결승점을 통과했으며 우리 아들은 끝에서 두번째였다.

남편이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박수치며 “할아버지, 할아버지, 영차! 영차! 영차!” 하고 응원했다. 시장이 나와 남편을 포옹해 주고, 불꽃놀이가 하늘로 치솟고 밴드가 연주되었다. 일흔 두 살의 위대한 스포츠맨이 두 시간 십 오분 만에 그 구간을 완주했다는 방송이 나왔다. 우리 아이들과 나는 기뻐서 울었다. 남편은 자신이 받은 상금의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공공 자선 사업에 기증했다. 그의 관대함과 그 마라톤에 끝까지 참여하겠다는 그의 결단력은 그의 자녀에게 커다란 모범이 되었다.

나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인생이다. 즉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굉장한 노력을 해야 하는 시합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만일 우리가 성공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기쁘게 나의 남편을 환영한 것과 똑같이 천사들이 기쁘게 노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장이 남편을 포옹한 것처럼 주님이 기쁘게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며 우리를 팔로 안아 주시고 “잘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좋아”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 “마라톤” 코스를 따라 서 있는 군중들처럼 교회 지도자들은 인생의 코스를 따라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으며 담대하게 되도록 도와 주시며 우리에게 생수를 마련해 주신다. 총관리 직원들은 “용기를 내십시오, 굳건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일 끝까지 참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이다. \*

이 마라톤이 있었을 당시 레온 페레즈 형제는 멕시코시티 북 선교부의 산 펠립 오리지탈란 지부의 지부장이었다.

# 참된 빛

마티나 슈벨.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에서 당신이 겪어 온 모든 문제와 당신에게서 결여된 것을 모두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몹시 상해서 “그렇지만 나는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그 말에 내 친구는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를 돌아보고는 이 사람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눈이 먼 사람입니다.

나는 절망에 빠진 적도 있었고 울면서 잠든 밤도 있었고 여러 달 동안 무감각적인 반응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매일을 보낸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눈이 멀어서 암흑 속에서 더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것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입을 옷이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모를 때 시작됩니다. 또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지금 오는 버스가 내가 타야 할 버스인지 모를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하루 업무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서 나를 향하여 머뭇거릴 때가 흔히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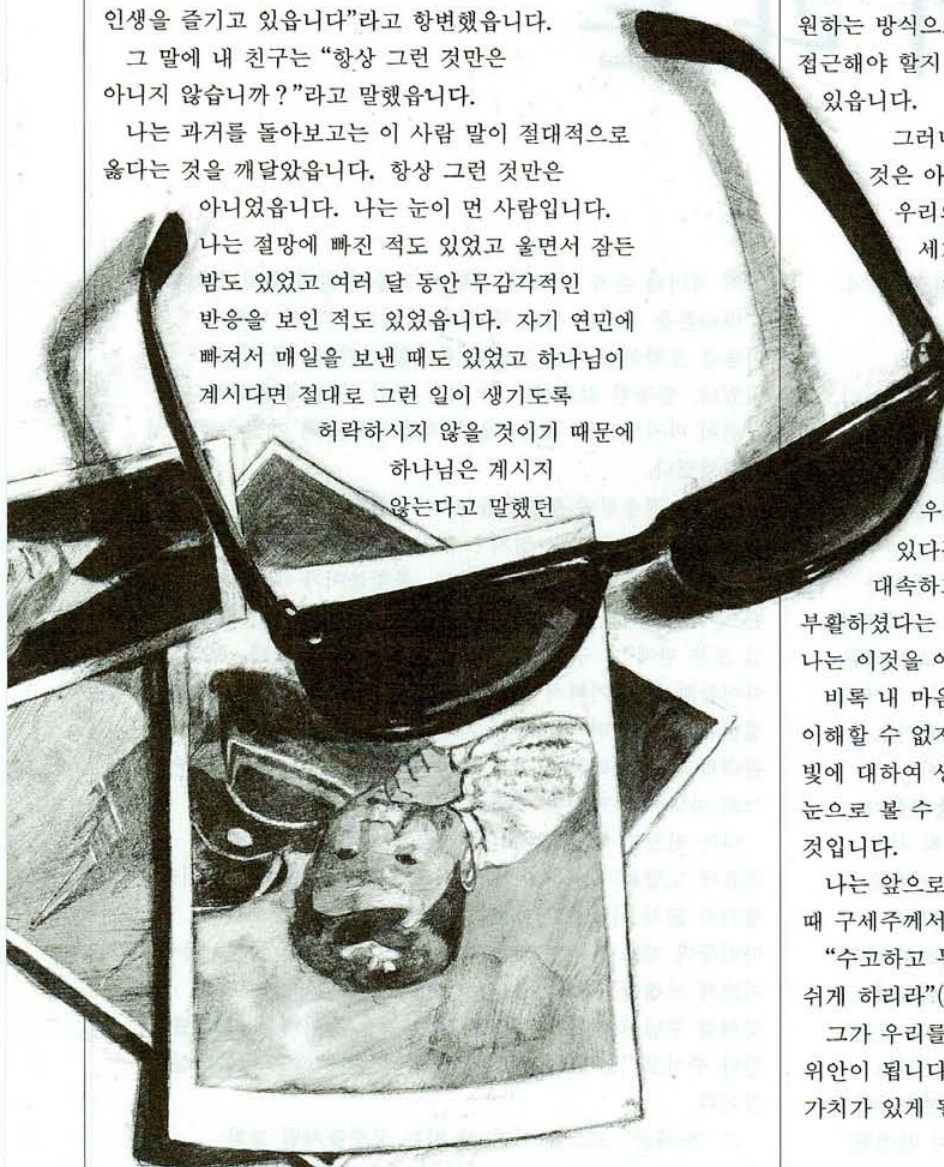
그러나 이런 것은 사소한 일로써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일은 우리의 눈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세계가 다른 사람의 것보다 작다는 것을 알지만 나의 세계는 나에게 생명과 같은 고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상의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유일한 참된 교회라는 확신과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하여 계시를 받고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정되며 안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아는 데서 기쁨과 화평을 느낍니다.

비록 내 마음은 복음의 견줄 수 없는 아름다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복음 안에서 기뻐합니다. 나는 이 빛에 대하여 생각할 때 경외심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현재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빛과 바꾸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내가 겪게 될 어려움과 슬픔에 대하여 생각할 때 구세주께서 주신 위대한 약속에서 위안받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그가 우리를 쉬게 해주시리라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큰 위안이 됩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인생은 풍요롭고 인생은 살 가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



# 그의 말씀이 성취됨

에리카 헤이먼. 우리 부부는 1973년에 교회에 가입했다. 우리가 침례받기 전에 우리의 두 살된 외아들이 심장 개복

수술을 받은 후 죽었다. 우리는 또 아이를 갖게 되기를 갈망하였으며 특히 복음 원리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얻은 후는 더욱 더 원했다. 일 년 후 우리 스테이크

축복사가 만일 내가 신앙으로 간구하고 나 자신을 함당하게 유지한다면 주님께서 더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다.

나는 1976년에 임신한 것을 알았으나, 녀 달 반이 지난 후 유산했다.

1982년 축복사의 축복을 받은 지 팔 년 후 우리 아들 크리스찬이 태어났다. 그는 조산아로서 제왕 절개 수술을 통하여 태어났다. 그는 체중이 800그램밖에 되지 않았으며 의사들은 우리에게 거의 희망을 주지 않았다. 우리는 크리스찬이 남편의 신권 축복을 받은 후 굉장한 진전을 보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그가 태어난 지 사흘 후 그를 면회하게 되었다. 나는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나는 새벽 두시 반에 일어났다. 나는 뺨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에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발 이 아이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이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라고 간구하면서 “그러나 당신의 뜻이거든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그날 아침 좀 늦게 남편이 와서 우리 아들이 새벽 2시 45분에 죽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슬픔으로 우리는 함께 울고 기도드렸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우리를 감싸는 것을 알았다.

나는 병원에서 축복사 축복문을 여러 번 읽어 보았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후 한 아이를 낳은 것이다. 그러나 그 축복문에서는 축복사의 입으로부터 나온,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아이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다. 나는 이미 서른 다섯 살이었으며 두 아이를 잃은 후 낙담하고 있었다.

1984년, 크리스찬이 죽은 지 이 년 후 우리의 사랑하는 딸이 태어났다. 나는 그녀를 낳으면서 거의 죽을 뻔했다.

우리는 우리의 두 아들이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벌써 처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된 우리 딸로 인하여 기뻐한다. 만일 우리가 더 많은 자녀를 받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기쁘게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복음은 참되다. 복음은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었다. \*

# 그들은 마지막 순간을 예상했다

리차드 엘 에머리. 감독이 나에게 교통 사고로 다친 어떤 여인에게 병자 축복을 하러 우리 지역의 병원으로 가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샤론 자매에 대하여 들었다. 나는 그때 막 우리 사무실에서 약간 떨어진 그 병원에 있는 다른 자매를 방문하고 돌아온 길이었다. 나는 그날 별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곳으로 또 가고 싶지

않았으며 그런 귀찮은 일에 약간 짜증이 나 있었다. 그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도, 나는 그다지 기분이 내키지 않았다.

샤론 자매가 가족과 함께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자동차가 큰 트럭과 정면 충돌했던 것이다.

샤론은 그 충돌에서 심한 부상을 당하여 눈이 크게 찢어지고 팔에 골절상을 입고 코가 깨졌으며 내상을 입고 두개골이 심하게 으깨어졌다. 그녀의 한 아들은 그 사고로 죽었다. 다른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다. 남편과 나머지 두 자녀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잠깐 그녀를 진단하고 나서 직원에게 자신은 그녀의 생명을 구할 가망이 없다고 말했다. 샤론은 신권 축복을 요청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우리 와드의 회원 한 사람이 병자를 축복할 준비를 갖추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샤론의 머리에 성별된 기름을 부을 곳을 찾으려고 했으나, 그녀의 두개골이 심하게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었다. 마침내 그는 그녀의 머리 한쪽면에서 작은 깨끗한 지점을 찾아냈다.

나는 그녀를 축복할 말을 마음 속으로 찾으려고 애썼다. 나는 이전에 죽어 가고 있는 사람에게 병자 축복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영이 나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 했다. 나는 그녀가 살아서 자녀를 키울 것이며 그녀의 지상에서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과 그녀의 가족은 아직 그녀를 필요로 하며 그녀의 부상이 곧 치유될 것이라고 그녀에게 확신시켜 주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간호원과 수녀로 구성되어 있는 그 병원의 응급실 직원에게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들은 마지막 의식을 대하고 있었으므로, 우리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여인에게 그녀가 무사하리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 축복이 끝난 후 우리와 이야기를 나눈 한 수녀는 샤론이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했다. 바로 그 수녀가 그 다음 날 나에게 전화를 해서 샤론 자매가 나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샤론은 병상에 똑바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올랐고 눈에는 빛이 나오 있었다. 샤론은 축복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나서 경전을 좀 읽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떠날 준비를 하자 샤론은 그녀의 얼굴에서 자꾸 미끌어져 내리는 산소 호흡 마스크를 잘 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머리 끈을 잡아당기다가 그녀의 두개골 부상이 흔적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머리는 피를 흘렸거나 뼈가 상했던 흔적이 전혀 없이 감쪽같았다.

샤론은 이주 후 퇴원해서 걸어서 나왔는데 팔을 끈으로 싸매고 이마에 작은 붕대를 붙인 것밖에 없었다. 그 사건은 우리 두 사람에게 매우 드문 기회가 되었다. 샤론에게는 신권에 대한 놀라운 신앙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고, 나에게서는 언제나 필요할 때에는 기꺼이 신권 봉사를 행하겠다는 약속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다. \*

응급실 직원들은 우리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여인에게 그녀가 무사하리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 질의 응답

교회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흥미있는 질문에 대한 지침으로 소개하는 것임

우리에게 우리를 지켜 보며 보호해 주는  
수호 천사가 있다는 생각은 진실된  
것입니까?



래리 이 달,  
브리검 영 대학교  
교회 역사 및 교리 부교수

**우**리의 경전에는 “천사”와 “성역을 베푸는 천사”에  
대한 언급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수호  
천사”라는 말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전에서는 물론이 간증한 것처럼 “성역을 베푸는 천사”의  
역할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신앙으로 인하여 천사가 인간들에게 나타나 은총을  
베푸는 것이어늘, 만일 이러한 일이 그쳤다고 하면...이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음이요”(모로나이서 7:37)

경전에서는 천사들이 다음과 같이 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나타나 성역을 베푸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영광에 관련된 사건을 선포하고  
간증함(마태복음 1:20~21, 28:1~6; 눅 1:11~20,  
2:8~14; 요한계시록 14:6부터 끝까지; 교성 88:92~110)

—복음을 전파하고 “인간들에게” 성역을 베풀어  
“그리스도의 강림을 알게 하”심(모로나이서 7:22; 모세서  
5:58 참조)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에게

전파함으로써, 저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을  
갖도록”함(모로나이서 7:31; 또한 모사이아서 3:1~27  
참조)

—지상에 “저희 권리, 열쇠, 존귀, 위엄, 영광 그리고  
신권의 권능을” 가져다 줌(교성 128:21, 또 교성 27:12,  
110:11~16 및 요셉 스미스이서 68~70 참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환난의  
시간에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함(행 5:18~20; 단 3:28; 니일  
3:29; 월 5 참조)

—충실한 사람에게 필요할 때 위안과 지시와 경고를  
해줌(창세기 16:7; 출애굽기 23:20~23; 마태복음 2:13,  
19~20; 니파이일서 11:14~15, 30 및 엘마서 8:14~18)

이 천사들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역을  
베푸는 천사는 현재 이 세상에 속하고 있거나 속한 적이  
있었던 자 아닌 자가 없느니라”(교성 130:5)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 존재는 아직 육신을 입고 태어난 적이  
없거나 세상에 살았으며 아직 부활하지 않은 영일 수  
있습니다. 또는 부활했거나 변형해서 만질 수 있는 육체를  
지닌 존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교성 129:1~9)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 성역을  
베푸는 천사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지상의 주민들에게 성역을 베풀도록 보내진 사자는 낯선  
자들이 아니며 그들은 우리의 혈족과 친구와 동료 및 동료  
봉사자의 직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미 죽은 고대의  
선지자는 지상에 있는 그들의 동료를 방문하려 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왔습니다.  
구세주를 도와 주며 그가 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도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았고, 이러한 권리와 특권을 받기에 합당하게  
살다가 죽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친구들은  
사랑과 경고와 질책과 지시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상에 있는  
자기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다시 방문할 책임을 갖고

# 답응 10월

있습니다.”(복음 교리, 395~96페이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각자 필멸의 생애 동안 우리와 함께 할 특별한 “수호 천사”가 있습니까?

1973년 연차 대회에서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온 사자로부터 축복받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궤양이 점점 악화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아내 조안은 선교 여행 중…다음 날 아침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비행기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몇몇 회원들은 뒷칸에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어떤 지점을 통과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위를 올려다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이 한번 더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또는 어떻게 하여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단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축복이 아주 필요했다는 것을 몇 시간 후에 알게 되었다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내내는 걱정에 싸여 의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의사는 제가 전화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의사가 건강 상태가 어떤지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매우 피로하지만 곧 나아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큰 출혈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출혈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 있었으면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성도의 빛, 1974년 3월호, 44페이지)

리 대관장은 또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수호 천사”의 도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항해합니다…이것은 자연이 맹위를 떨치는 폭풍일 수도 있고 파탄을 위협하는 정신적 혹은 정서적인 폭풍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접하거나 어떤 원인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바울처럼 금식 혹은 장기간의 단식으로 강화시킨 신앙에 의하여 환난의 ‘그 밤’ 동안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의 ‘수호 천사’가 여러분의 옆에 서있게 할 수 있습니다.”(성공적인 생애를 위한 결정,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3년], 79~80페이지)

각 개인에게 “수호 천사”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 해 전에 존 에이 윗소우 장로가 말씀한 바 있습니다.

“천사들이 때때로 우리를 사고와 해로부터 또 유혹과 죄로부터 수호해 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을 수호 천사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으로부터 인도와 보호를 받은 것에 대하여 간증해 왔으며 또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하심과 있을 수도 있는 거룩한 천사로부터 우리가 받는 도움이 없다면 인생의 어려움은 엄청나게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각각 계속해서 함께 할 수호 천사가 지명된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한 천사가 우리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도록 지명받을 때에만 온다 할지라도 그 천사가 수호 천사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성신이 끊임없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그와 같이 늘 함께 하는 천사의 동반은 필요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지식을 받게 될 때까지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파송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함께 할 특별한 수호 천사가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44년 4월호, 225페이지)

우리 시대에도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과 브르스 알 맥쿱키 장로는 모두 다 우리 생애에서 위급한 순간에 성역을 베푸는 천사로부터 도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이 지상에 있는 각 개인에 대한 참된 “수호 천사”는 그리스도의 빛과 성신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권세와 인도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I, 54페이지, 브르스 알 맥쿱키 편)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의 빛과 성신을 통하여 일종의



수호자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성역의 천사들은 때때로 필요할 때 주님의 종과 기타 충실한 사람들을 인도하고 위안하고 보호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파송됩니다.

(3)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를 위하여 성역을 베푸는 천사에는 우리의 처지를 알고 있고 우리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고인이 된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천사의 성역에 있어서 신앙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 성찬 기도문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도린 윌러,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세미나리 교사

**성** 찬 기도문에서는 우리가 행할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1) 성찬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여” 먹고 마십니다.

(2)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이 항상 그를 기억합니다.

(3) 계명을 지킵니다. (교성 20 : 77~79 참조)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억한다든지 또는 “기억하여” 어떤 것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억한다는 말에 대한 사전의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념한다든지 다시 생각하는 것”,

“관심이나 주의를 계속 돌리는 것”, “기억 속에 보존하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에는 자주 그분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우리의 죄를 위한 그분의 대속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맺은 성약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으며 우리 생활을 그분의 가르침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런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의 동반하심을 입는 가운데 좀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기본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첫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기 성찰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합당하게 참여해야 하며, 각자 자신의 합당성과 관련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맺은 성약이 있습니다.

“세째로 또 다른 축복이 있으니 그것은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연차 대회, 1946년 4월)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앞으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약속하는 가운데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 대하여 깊이 사색하게 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할 때 우리가 홀로 버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위안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도움과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몬은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읍니다. “나는 나를 자랑할 수 없으나 주의 힘으로 만사를 다 할 수 있으며, 나의 주를 자랑하리라.”(앨마서 26 : 12)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 영적인 힘을 더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느낌을 다스리는 것이 좀더 쉬운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킴으로써” 그분을 알게 됩니다. (니파이이서 32 : 3)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그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좀더 그리스도 같이 됨에 따라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크신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그분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영원히 참을 것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을 지닌 것으로 인정을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잘 되리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허가하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저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저를 볼 것이며, 우리가 저와 같이 되게 하교”(모로나이서 7:47~48)

우리는 참된 사랑을 지닐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선택이 되며, 우리의 생활은 그분의 뜻을 반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행동은 그리스도처럼 되며, 우리는 문자 그대로 “타락한 육욕의 모양이 의로운 것이 되며, 하나님께 속죄받아 그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모사이야서 27:25)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는 사람의 모범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자매는 최근에 맹인 대회에서 자원해서 안내자로 봉사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참석자들이 워크숍과 교실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일에 다른 교회 회원들과 함께 참여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의 봉사는 그 대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돌볼 가족이 없는 외로운 여성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그 여성이 장을 보고 매일 집안 일을 하며, 또 의사에게 가는 일을 도와 주었습니다. 그 여성이 중병에 걸렸을 때 이 자매는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여성이 죽었을 때 그 자매는 모든 장례 절차를 준비했으며 그 여인이 그전에 일러준 친척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한 헌신적인 봉사는 그 대회에서 자원 봉사자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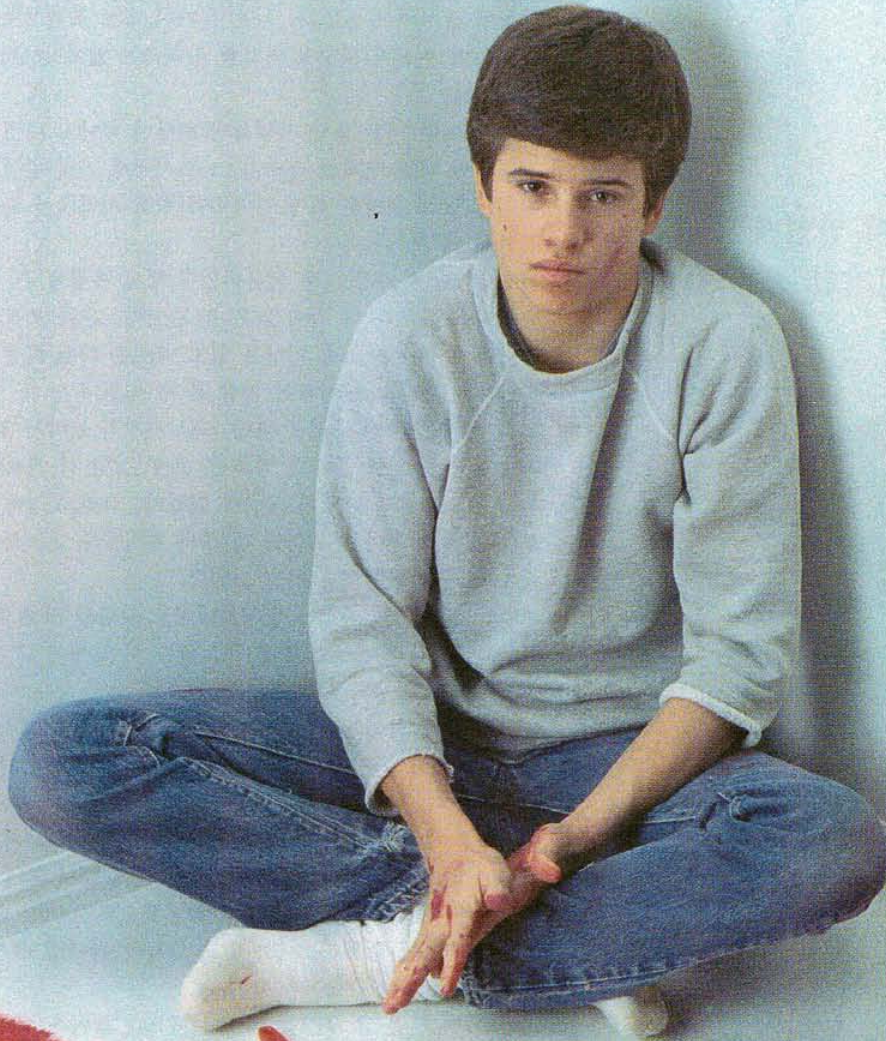
순간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었으나 이 자매는 정말로 그리스도같은 봉사를 하기 위하여 그 이상의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생활하시고 가르치신 원리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며 점점 더 그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이해력이 깊어지며 봉사하는 능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좀더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릴” 수 있게 되며(모사이야서 3:19) 영의 속삭임에 귀기울이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을 간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같은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회상할 기억력을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많이 “저장”할 때 그러한 기억을 쉽게 “되찾아 낼” 수 있게 되며 마치 컴퓨터가 올바른 키를 눌렀을 때 저장된 정보를 되살려내는 것처럼 거의 자동적으로 보다 더 쉽게 그런 것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억의 원리와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직 초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도와 줄 “눈에 보이는 상기시켜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상기시켜 주는 것들”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성찬, 경전, 그리스도의 그림, 성전, 총관리 역원, 합당한 음악, 가정의 밤, 봉사, 개인 및 가족 기도, 주님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속성과 태도와 행동을 택하려고 애쓰는 것 등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덕을 쌓으며 내 앞에서 거룩할지어다”(교성 38:24)라고 명하셨지만, 우리가 하룻 밤 사이에 완전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열쇠가 되는 것은 실천입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식 동안에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을 실행하는 가운데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좀더 쉬워집니다. 그분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감으로써 마침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됨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받게 될 때까지 점점 더 그분처럼 되게 됩니다. (교성 93:11~20 참조) \*

# 나갈 길이 있다



그린트 원본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자신을 구석으로 몰면서 칠을 하는 것이다.  
회개는 유일한 출구이다.

사회의 나쁜 많은 것들이 만연해 있는  
거리에서 선교사들은 영적인 섬이었다.



1975년 여름, 내 나이 스물 다섯 살 때 부친이 돌아가셨다. 그는 외국의 다른 지역에서 사업상 이익이 걸린 캐나다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 대신 유럽으로 여행하여 부친의 사업상 거래를 처리하는 일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다.

매일 여러 시간 동안 사업상의 회담이 끝나고 나면 나의 동료들이 나를 시내로 데려가 그 도시에서 가장 번잡한 거리에 있는 유명한 쇼펍 지역이나 산책 지역에서 휴식을 취하게 해주었다.

몇 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이었던 당시 유럽에 온 관광객들은 모두 다 길에 나온 것 같았다. 온갖 국적의 사람들이 때로는 고유 의상을 입고 때로는 더위 때문에 옷을 조금밖에 안입고 산책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거리는 비싼 물건을 파는 고급 가게가 늘어서 있었으나 인생의 찬란 면—음란한 영화관, 소위 성인 책 가게라고 하는 것, 술집도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네 명의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길에서 선교 전시회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태도는 나같은 비회원에게도 감탄할 만한 것이었다. 이 사회의 나쁜 것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 길에서 그 선교사들은 영성의 섬이었다.

나는 그때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으나 그들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 젊은이 가운데 길에서 걷고 있는 아가씨들이 아무리 옷을 적게 입고 있어도 그들을 쳐다보는 사람은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일이 없는 저녁에 다시 그곳으로 가서 그들을 만나기로 결심했으나 찾아갈 때마다 그들은 그곳에 없었다. 나는 결코 그들을 찾아낼 수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며칠 간 그 도시를 떠나야 했으나 돌아온 직후 두 명의 선교사가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 후에 나는 그날이 그들이 쉬면서 준비하는 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걸어가면서 가게의 쇼윈도우를 들여다 보곤 했다. 나는 그들을 따라 가면서 그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그들이 들여다 보는 쇼윈도우를 들여다 보기로 했다. 나는 그들이 구두나 코우트를 찾고 있는 것을 알았으며 그들이 어떤 서점에 갔을 때 그 서점은 교재만 파는 서점이었다. 그들은 주점이나 기타 부도덕한 책이나 그림 따위를 파는 가게는 들여다 보지 않았다.

나는 하루나 이틀 사이에 가두 전시하는 선교사들을 만나기로 계획했으나 갑자기 사업상 거래가 끝나서 캐나다로

돌아오게 되었다.

집으로 와서는 그 선교사들을 보면서 느낀 것을 일부 잊었다. 그러나 어떤 친구의 소개로 몇몇 선교사들이 나하고 약속을 했다.


그 두 젊은이를 우리 아파트로 맞아들였을 때, 유럽에서 선교사들을 길에서 보았을 때 느꼈던 것과 똑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서 첫번째 토론에 귀기울였다. 나는 그 장로들의 간증이 진실함을 알고 그들의 눈을 들여다 보았으며 그들과 평생 동안 알고 지낸 것같이 느꼈다. 나는 몇 주 동안 선교사 토론을 한 다음 교회에 가입했다.

나는 자주 유럽에서 본 그 선교사들에 대하여 생각했다. 만일 내가 뒤따랐던 그 두 명의 선교사가 술집 앞에 서서 맥주에 대하여 농담하고 웃었다든지 젊은이들이 호기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가게에 들어갔다면 그들의 모범적인 영향은 없어졌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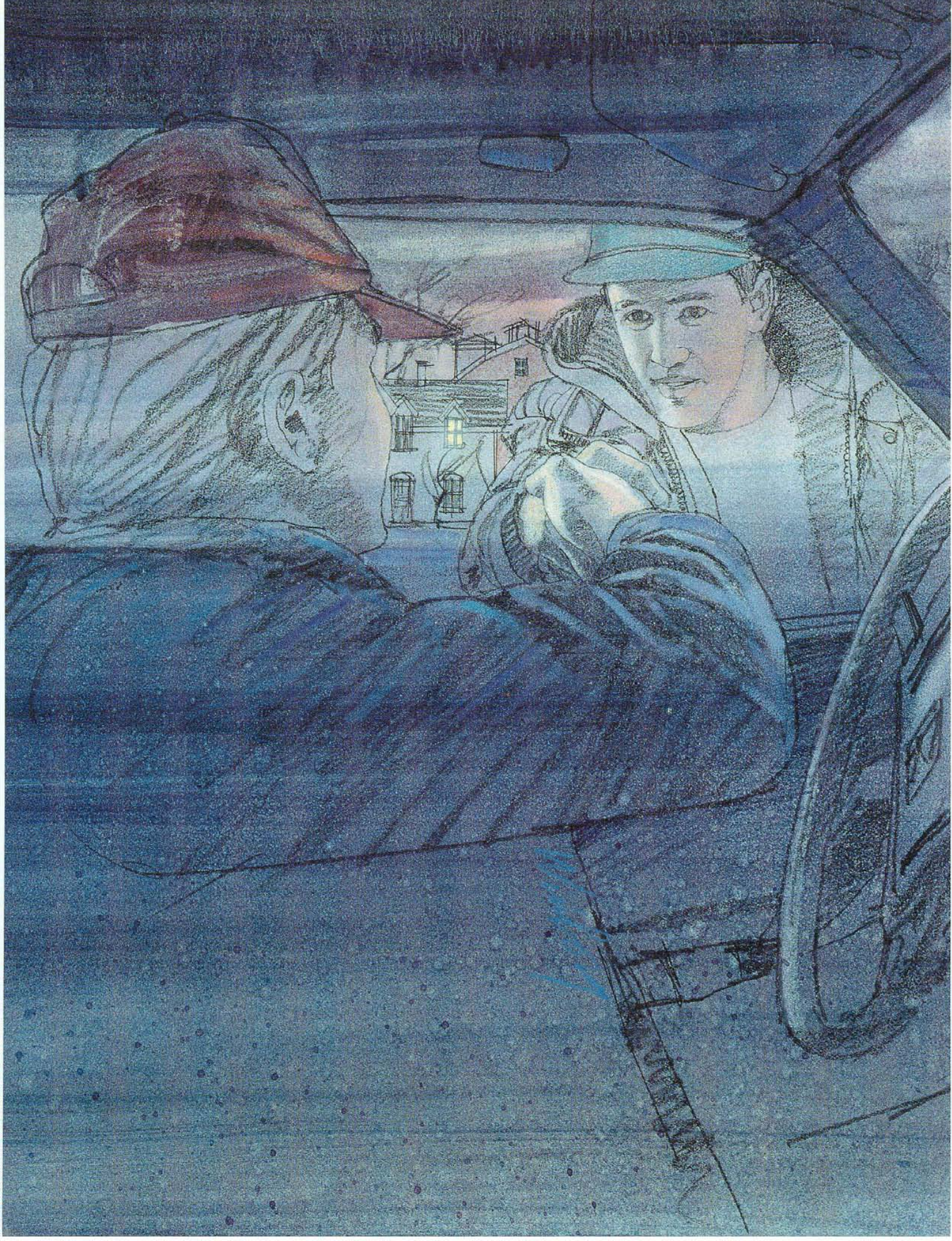
그 여름 날 세상적인 것이 그 선교사들 옆을 지나갔다. 그들은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또 그들의 태도가 나에게 간증을 해주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나를

감동시킨 것은 바로 그들의 모범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내가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비록 그들이 그 거리에서 많은 사람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나처럼 단지 그들의 모범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



## 모범의 간증

조셉 밀너



# 추위 속에서 배운 한 가지 교훈



우리의 정원회 모임이  
끝났다.

정원회 고문인 리드  
형제가 “이것으로 광고와 임무 지명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괜찮다면  
공과가 끝난 후 그레고와 톰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했다.

나는 “아이구, 이것 참 곤란하게 된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다. 나는 머리를  
숙이고 팔짱을 끼고는 폐회 기도가  
끝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했다.

우리 두 사람 다 리드 형제가 왜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지 알고  
있었다. 톰과 나는 몇 주 동안 제  
시간에 신권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때로는 참석을 안하기도 했다.  
때로는 소리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뒷줄에 앉아 있다가 성찬식 지명을  
수행하고는 빠져 나가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늦잠을 자거나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기 때문은  
아니었다. 정 반대였다. 우리는 매일  
새벽 4시 30분이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낙농가에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하여 완전히 잠이 깨어

있었다. 우리 아버지께서 최근에 심장  
마비에 걸렸으므로 톰과 내가 소의  
젖을 짜고 집안을 깨끗하게 치우고  
기타 모든 낙농일을 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우리는 그 소들을 돌볼  
시간표를 잘 짜 놓아 주중에는 쉽사리  
제 시간에 학교에 도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7시 30분에  
신권회에 도착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끝내고 목욕하고 옷을 입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는 그 모든 할  
일 때문에 신권회에 나가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제사 정원회 고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 리드  
형제가 의자를 끌어와서 우리 가까이  
앉았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너희 두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 정원회가  
정말로 무언가 빠진 듯이 허전하다.  
내가 무언가 잘못된 거지? 내 공과가  
나쁜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라도  
있니?”

우리는 꾸중들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리드 형제는 우리가 늦는 것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전혀 그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으며, 우리가 농장에서  
하는 일을 말했다.

우리 두 형제는  
몇 주 동안 제 시간에  
신권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었다. 때로는 참석을 아주  
안하기도 했다.

---

그레고리 글렌이  
리사 에이 존슨에게 한 이야기



“내가 일요일에 일찍 너희 집에 가서 일하는 것을 좀 도와 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니? 그렇게 해도 좋다면 나에게서는 특권이 될 것이며 너희들이 신권회에 시간을 맞춰 오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어떻게 생각하니? 몇 시에 일을 시작하니?”라고 물었다.

톰과 나는 동시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리드 형제에게 그렇게 하도록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누구든지 아침 일찍 이불에서 나와서 일요일에 자기 가족을 떠나기에는 새벽 4시 30분은 너무나 이른 시간이었다. 둘째로 우리는 그가 영하의 추운 날씨에 고생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셋째로 우리는 그에게 정말로 지지분한 일을 맡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몇 시에 일을 시작하는가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새벽 3시 30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아무리 도움이 되고 싶든 할지라도 누구든지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른 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리드 형제님이 진심으로 도와 주고 싶어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약속하고 나서 앞으로는 모임에 제 시간 내에 오도록 좀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일요일 날 매우 추운 새벽 4시 15분 경 내가 이불에서 나올 때까지는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그의 제안에 대하여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창문 밖을 내다보고 리드 형제님의 낡은 차가 우리 집 밖에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즉시 옷을 입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 차의 창문을 두드렸다.

그는 창문을 열면서 쾌활하게 “잘 잤니?”라고 말했다. 그가 말할 때 우리 사이의 대기에 하얀 입김이 차갑게 서렸다. 그가 손을 내밀어 악수했는데 그렇게 차가운 손은 만져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마도 3시 30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그를 집안으로 안내하면서 “툼이 옷을 입을 동안 들어와 계세요”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나서 톼이 일할 준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러 달려갔다.

몇 분 이내에 리드 형제와 톼과 나는 눈을 헤치며 헛간으로 터벅터벅 걸었다. 우리가 과장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양에 관한 것이었으며 리드 형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일했다.

우리가 소젖을 짜고 있을 때 리드 형제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좀 겸연쩍은 듯이 “그 우유 조금만 맛볼 수 있겠니? 생우유의 맛이 어떤지 거의 다 잊었어”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정원회 교문에게 큰 정을 느꼈다. 우리는 그에게 한잔

드렸을 뿐 아니라 가족에게 가져 가도록 몇 되를 더 드렸다. 그것은 우리가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었다.

신권 정원회 시작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데 아직 일이 끝나지 않고 있었다. 마침내 리드 형제가 집으로 가서 교회에 갈 준비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마의 땀을 닦으면서 “이제 나는 너희가 제 시간에 공과에 오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알겠다. 앞으로는 좀더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고 헛간에서 나가서 그의 자동차로 갔다.

그가 교회에 도착해서 톼과 내가 이미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난 놀라운 표정은 정말로 볼 만했다. 우리는 그가 그 살을 에이는 추운 아침에 우리를 도와 주러 올 만큼 관심이 있다면 우리도 좀더 빨리 일하고 그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때 이후로 우리 두 사람 모두 모든 모임에 제 시간에 참석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매주 일요일 우리 두 사람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교회에 가도록 했다.

그리고 우리는 리드 형제님의 공과가 실제로 상당히 훌륭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공과 가운데 어떤 것도 그 추운 겨울 아침 봉사와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친 그 교훈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



# 나는 그 말을 기억한다

트리스타 크로슬리

**사**촌이 “애, 트리스타,  
너는 아직도 네가  
말한 그 해의 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니?”라고  
물었다.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한동안 머뭇거리며 그녀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썼다. 잠시 후 기억이 났다. 지난 여름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 나와 사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나중에는 교회에 대하여 토의하게 되었다. 사촌은 교회 회원이 아니고 교회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어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해 달라고 했을 때 나는 기꺼이 응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부 다—요셉 스미스의 이야기, 우리가 믿는 것, 나의 꿈, 내가 두려워 하는 것 등—이야기했으며 그 중에는 해의 왕국에 도달하는 나의 목표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간증을 전하고 복음이 참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훌륭한 반역자와 함께 영원히 살고 가족과 함께 살게 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도 이야기했다. 그녀는 주의깊게 듣고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으며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대답해 주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녀는 내가 말한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으며 나는 내가 선교 사업을 한 것이 기뻐했다.

일곱 달이 지난 지금 그녀가 내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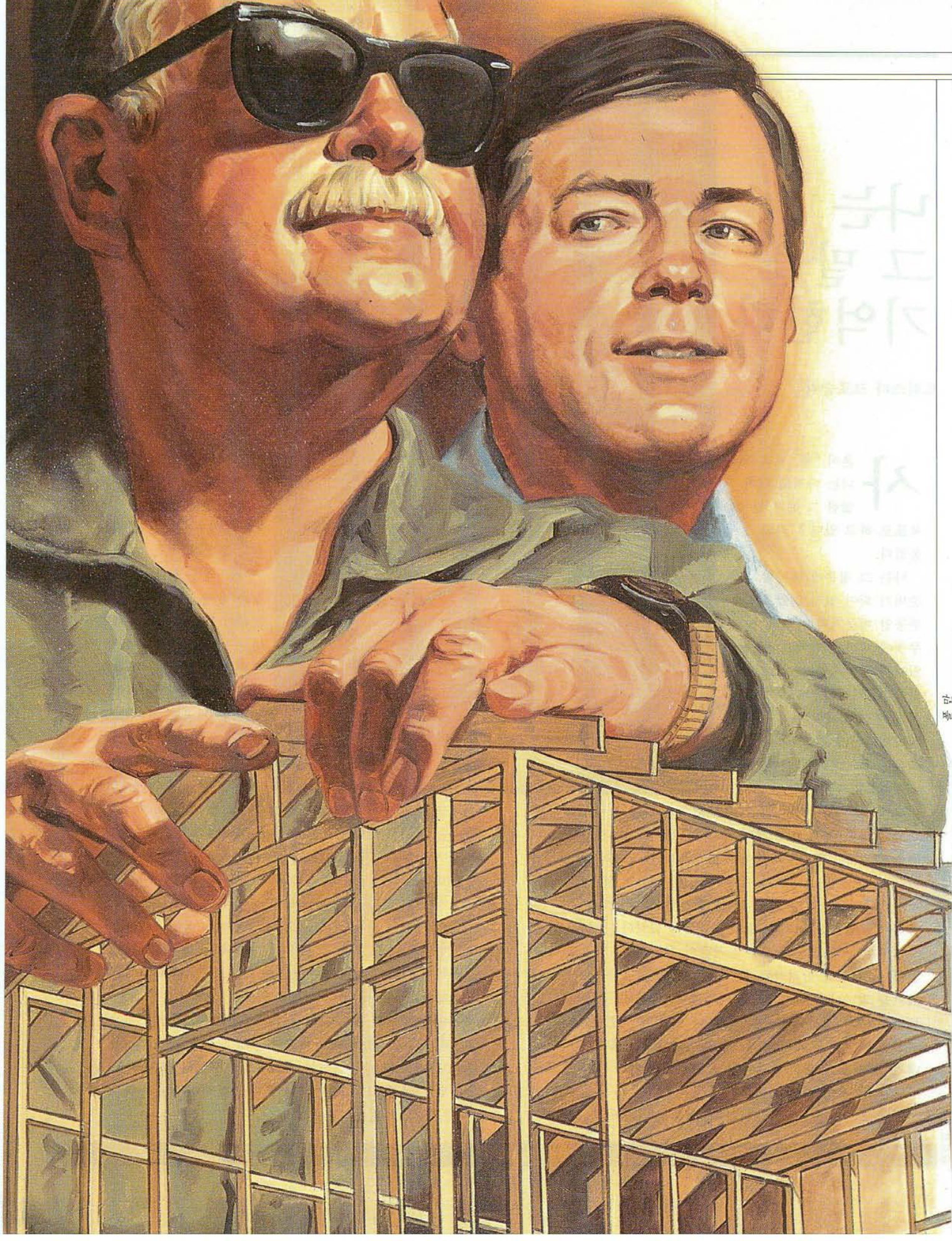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다.  
“지금도 그래?”라고  
기대에 차서 대답을  
기다리며 나를 쳐다보면서  
묻고 있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창문 밖에 눈이 오는 것과  
눈송이 하나하나가 수백만의  
다른 눈송이와 합쳐지는  
것을 지켜 보았다. 인생도  
저렇게 단순한 것이라면.

“나는 지금도 해의 왕국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나?”라고 자문해 보았다.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별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학교  
점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제일 친했던 친구와의 사이도  
조금 멀어졌고 가족 관계도 기대만큼 훌륭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활동으로부터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곳에 앉아 있는 동안 나  
자신의 생활을 다시 살펴 보고 그 생활이 그동안 얼마나  
공허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몸을 돌려 그녀를 보고  
조용하게 그러나 확고하게 눈물을 머금고 “그래”라고 말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목표를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에 나는 참으로 감사드린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 나는 해의 왕국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자신에 대하여 의심이 들 때에는 “그래”라는 두  
글자만 기억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안다. \*



# 나의 부친과 맹인

데니스 케이 앨린. 나는 그가 오십 세로서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는 늘 외투와 무거운 작업화와 검은 안경을 쓰고 있었다. 우리 부친과 친구인 그 사람은 혼자 살았으나 가끔 우리를 위해 일해 주었다. 그의 이름은 존이었으며 그는 사십 년 이상 맹인으로 살아 왔다.

존은 미완성의 단칸방 집에서 살고 있었으며 그 집은 벽이 비뚤어지고 굴뚝도 몹시 비뚤어져 있었다. 그 집은 더럽고, 튀긴 음식과 훈제 베이컨과 커피 찌꺼기, 석탄 및 나무 타는 연기의 축축하고 부패한 냄새가 나고 있었다. 그 집은 존이 직접 지었다. 그 때문에 그 벽과 굴뚝이 비뚤어져 있었다. 그는 대부분 베이컨과 계란, 튀긴 감자, 빵과 우유를 먹고 살았으며 그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났다.

비록 존의 집은 우리 집에서 약 2.5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그가 식품을 사는 작은 가게와 거의 같은 거리에 있었으나 그는 그 자갈길을 내가 부러워 할만큼 빠른 속도로 자신있게 걸을 수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완제품의 품질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약간의 목수 일을 했다. 한번은 여름에 그가 우리 부친과 함께 자동차 주유소를 지었다. 존은 우리 집까지 걸어와서 낮 동안 우리 부친과 함께 일하고 판자 더미에 앉아서 우리 어머니가 준비한 점심을 먹고 밤이 되면 그의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우리 부친은 언제나 존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가 가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봄과 겨울 몇 달 동안 부친은 우리 마을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다 주고 또 집으로 데려다 주는 스쿨 버스를 운전했다. 그의 버스는 하루에 네 번 존의 집 앞을 지나갔다. 그럴 때마다 부친이 버스의 경적을 울리면 학생들이 손을 흔들고 존도 마치 학생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집 창문으로부터 손을 흔들어 응답했다. 존이 늦잠을 자서 창문에 나타나지 않거나 그 비뚤어진 굴뚝으로부터 연기가 나오지 않으면 아버지는 차를 멈추고 버스 문에서 “존, 한낮까지 잠자면 어떻게 일을 다 할 참인가?”라고 소리치곤

했다. 그러면 존은 창문으로 나와서 그의 패종 시계가 울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변명을 하였으며 그러면 아버지는 다시 차를 몰고 가곤 했다.

우리 부친이 존과 대화하던 방식을 회상해 보다가 우리 부친의 훌륭한 점이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부친은 맹인이 독립하도록 돕는 방법에 관한 책을 읽거나 대학교수의 강의를 들은 적도 없었다. 그는 단지 상식을 활용하였으며 한 인간으로서 존에게 깊은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부친은 거의 매일 존이 잘 있는지 알아 보며 확인했으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것을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다: “존, 괜찮아?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뭐 필요한 거 있나? 내가 어디 좀 데려다 줄까?”

그 대신에 부친은 이렇게 묻곤 했다: “존, 나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들어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주겠나?”

“존, 나는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 데 이런 방식으로 지으면 어떨까? 좀 도와 줄 수 있겠나?”

부친은 항상 존으로부터 도움을 청하였으며 또 항상 도움을 얻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친이 얻고 있는 것은 없고 주고 있었던 것이다. 존과 접촉할 때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는 한 개인으로서 중요하며, 그의 의견은 의미가 있으며, 그는 이곳에 있을 권리가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은 영원하고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더 이상 자신을 돌볼 수 없을 때에는 “양로원”으로 갔다. 존은 일흔 한 살에 병이 들어서 그런 양로원으로 가기로 결정했으며 그 일은 그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 주는 것 같았다. 그는 그곳에서 다시 건강을 회복했으며 그가 선샤인(햇빛)이라고 부르는 한 명량한 여인을 만났다. 선샤인은 한번도 걸어 본 적이 없었다. 존은 자신의 강한 팔과 다리로 그녀가 다니는 것을 도와 줄 수 있었으며 그 여인은 그를 대신하여 앞을 볼 수 있었다. 존은 생활 방식을 바꾸고 다시 개종하여 교회로 들어왔으며 성전에서 결혼하고 사랑하는 동반자와 함께 세상을 떠나기까지 십 삼 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구세주께서 행하실 방법 그대로 사랑과 애정과 존경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방법을 나에게 보여 주신 부친보다 그 마지막 기간 동안 존에 대하여 더 기뻐했던 사람은 없었다. \*

니 파이가 여러 날을 바운티플에 머물고 나서  
주님의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사기를,  
일어나라 일어나 산으로 가라 하시는 고로  
내가 일어나 산으로 가서  
주님께 간구하였나니(니파이일서 17:7)

